



금강산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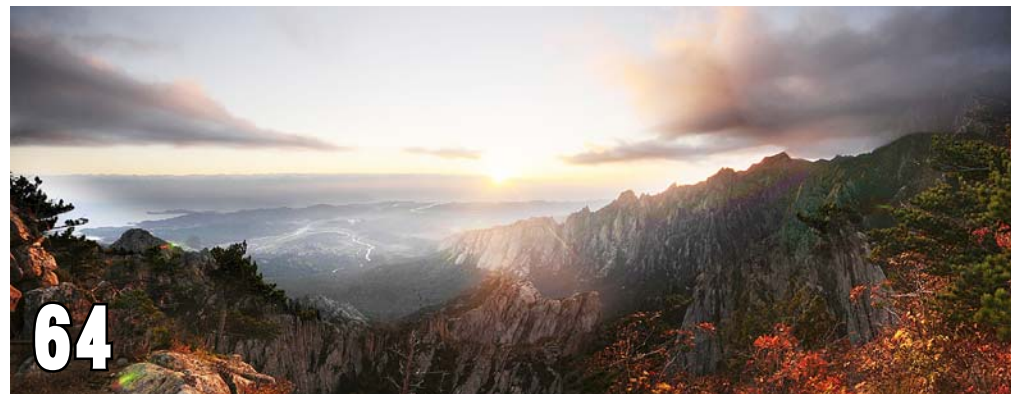
주체111(2022)
루계 제400호 월간



표지: 단풍든 거리에서

하루수업을 마친 소학교학생들이 집으로 가고있다. 나라에서 준 새 교복을 산뜻하게 입은 학생들이 단풍든 수도의 거리에서 좋아라 웃고 떠들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2 || 기적과 사변으로 흘러온 2022년
- 10 || 군력강화를 위한 길에 새기신 사랑의 자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 12 || 기쁨과 슬픔
- 14 || 인민은 장군님의 하늘
- 16 ||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 17 || 후대들을 위한 시책
- 20 || 효능높은 고려약을 더 많이
- 22 ||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하여
- 24 || 민족예술발전을 추동해간다
- 28 || 숲과 함께 이어지는 삶
- 32 || 광복지구상업중심
- 36 || 《우리들의 길동무》
- 38 || 취재수첩을 펼치고

- 40 || 《미술신동》의 오늘
- 43 || 조선룡맹경제문화교류사
고향소식
- 44 || 김화군의 새 모습
조국의 품에 안겨
- 48 || 비날론발명가 리승기
- 52 || 애국의 마음전하는 평양보령관
편지
- 54 || 보고싶은 언니에게
- 55 || 환경파괴의 주범
우리 나라 력사에 존재한 국가들
- 56 || 동방의 천년강국 고구려 (1)
민족의 향기
- 58 || 평양의 이름과 더불어 유명한 랭면
조선의 옛 화가들의 이야기를 펼치고
- 60 || 동물화로 이름을 남긴 리암
력사이야기
- 63 || 을밀대에 깃든 전설
조선의 명산
- 64 || 금강산 (2)
천연기념물
- 70 || 룡옥리공룡발자리화석

기적과 사변으로 흘러온 2022년



조선인민혁명군장군 90돛경축 열병식 주석단에서 열병대원들과 관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주체111(2022)년 4월

2022년이 바야흐로 저물어가고있다. 세계적으로 각종 전염병과 자연의 광란이 휩쓴 올해는 조국에 있어서도 류례없이 간고하고 시련에 찬 한해였다.

하지만 조국은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 일체의 위력으로 올해에 기적과 사변적인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0돐경축 중앙보고대회 및 평양시 군중시위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일심단결의 위력을 펼친 대정치축전들

오늘 지구상에는 자기 국가의 창건일이나 당창건일을 비롯하여 중요명절을 경사로 크게 기념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조국에서처럼 자기 령도자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의 세계가 숭고한 경지에서 펼쳐지는 대정치축전은 찾아볼수 없을것이다.

올해 조국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80돐을 경축하여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행사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주체의 래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 전면적발전을 이룩해나갈 인민의 기상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특히 지난 4월 25일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은 사변중의 사변이었다.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간 열병종대들은 그 어떤 적대세력의 침략책동도 일격에 제압해버릴 일당백의 기상, 또다시 몰라보게 비약한 무장장비의 발전상을 과시하였다.

지축을 울리며 위풍당당히 들

어서던 철의 대오는 변화된 조선의 힘을 보여주었다.

10년전과 다르고 2년전과 또 다르며 앞으로도 계속 달라질 공화국무력의 선진성과 현대성, 조국의 절대적힘의 높이는 곧 상상승비약하는 우리 국가의 존엄의 높이, 인민이 누려갈 행복의 높이였다.

열병식을 통하여 존엄높고 강대하며 승승장구하는 조국의 불패의 힘을 뚜렷이 과시하였으며 사회주의조선의 전도가 얼마나 양양한가 하는것을 세계앞에 보여주었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전승 69돐 기념행사와 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도 영웅조선, 영웅

인민의 긍지와 사회주의조선의 공민된 인민의 자부심을 더해주었다.

령도자를 하늘처럼 믿고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끝까지 따르려는 전체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 일심단결의 위력을 보여준 여기에 조국의 대정치축전들이 가지는 의의가 있다.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위민헌신의 창조물들

2022년의 첫아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도하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소식이 온 나라에 전해졌다.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신 그이께서는 올해를 위민헌신의 해로 수놓아오시었다.

조선동해기슭의 련포지구, 화성지구와 송신, 송화지구,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인민이 바라는것이라면, 인민이 기다리는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해도, 실사 그것이 불가능한것일지라도 자신의 불같은 헌신으로 결실을 보고야마시는 그이이시다.

그이께서는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서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목표가 성과적으로 달성되면 우리 당은

인민들과 한 제일 중요한 약속을 지키게 되며 우리 수도 시민들의 살림집문제가 철저히 해결되게 될것이라고 확인하시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에서도 그이께서는 방역전을 승리적으로 주도해나가기 위한 명안들을 제시하시면서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 건설, 련포온실농장건설과 같

은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숙원사업들을 제기일안에 손색없이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이 회의만이 아니었다.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올해에 진행된 대회들과 회

의들에서 중요의제로 토론된것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 인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에 관한 문제들이었다.

조국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적지 않은 대상건설을 진행하고있다. 결코 조건이 좋고 여유가 있고 풍족하여서가 아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하루빨리 잘살게 하시려는 그이의 확고한 결심과 강

렬한 의지에 의하여 만단을 헤치며 솟아나는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이다.

오로지 인민만을 위하시는 것처럼 뜨겁고도 다심한 손길에 떠받들려 착공한지 230여일만에 련포지구에 대규모온실농장이 일떠서고 농촌진흥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며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인민의 새 보금자리들이 건설되였다.



송화거리(왼쪽)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오른쪽), 련포온실농장(아래)이 훌륭히 일떠서 인민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최대비상방역기간 서로 도우며 사랑과 정을 나누는 미풍들이 높이 발휘되었다.

사랑으로 이룩한 방역대승

조국에는 예상치 못했던 난관도 조성되었다. 2년 3개월간 굳건히 지켜온 방역장벽에 파공이 생기는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모두가 불안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있던 지난 5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에서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시키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역을 철저히 봉쇄하고 사업단위, 생산단위, 생활단위별로 격폐한 상태에서 사업과 생산활동을 조직하여 악성비루스의 전파공간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차단할데 대한 문제, 과학적이며 집중적인 검사와 치료사업을 시급히 조직전개하며 당과 정부가 비상시를 예견하여 비축해놓은 의료품예비를 동원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강력하고도 과감한 방역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그날 깊은 밤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몸소 찾으신 그이께서는 전염병전파사태를 신속히 억제하기 위한 전략전술들을 제시하시였다.

그후에도 그이께서는 련이어 소집하신 당회의들에서 가장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방역정책들을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전국의 약국들이

24시간봉사체계로 넘어가도록 긴급대책을 세워주시는 한편 당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으로 인민군대 군의부문의 강력한 력량을 투입하여 수도의 의약품공급사업을 즉시 안정시키도록 해주시는 등 여러 조치들을 련이어 취해주시였다.

최대비상방역전과 관련하여 그이께서 지도하여주신 령도문건만 하여도 무려 1 772건에 22 956페이지, 련이어 소집하신 중요당회의만 하여도 10여차나 된다.

방역상황이 최대로 악화되었던 지난 5월 어느날 그이께서는 수도의 약국들을 찾으시여 의약품공급 및 판매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당시 약국의 판매원들은 악성비루스를 앓고난 뒤였고 그곳으로는 감염자들과 접촉한 많은 사람들이 무시로 드나들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그런것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 이후 무슨 약들이 공급되었는가, 약품들을 규정대로 보관하고있는가, 약국들이 24시간봉사체계로 전환하였는가,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상담은 하는가, 해열제와 항생제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주민들이 지금 제일 많이 찾는 약은 어떤 약들이며 가격은 얼마인가를 세심히 료해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

에서 그이께서는 가정에서 마련하신 상비약품들을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달라고 제의하시였다. 그후에는 또다시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들을 조선로동당 황해남도 해주시위원회에 보내주시였다. 의약품들에 고여있는 그이의 사랑을 수자나 무게로는 결코 계산할수 없다. 그 의약품들에는 수천만의 아들딸들을 거느린 대가정의 어버이마음이 담겨져있었다.

그이께서 내놓으신 방략과 적시적인 대책이 있었기에 나라의 전반적인 방역형세는 그렇듯 짧은 기간에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될수 있었다.

90여일만에 조국은 미증유의

보건위기를 평정하고 또다시 비루스청결지역으로 되었다.

진정 2022년은 그이의 불같은 사랑, 따뜻한 정, 헌신속에 인민의 행복이 지켜지고 마련된 잇을 수 없는 해였다. 그리고 사회주의 조선의 위상이 만방에 떨쳐지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이 수호된 뜻깊은 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현명한 령도가 있고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 있기에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의 새시대를 더욱 확신성있게 펼쳐가리라것이 기적과 사변으로 흘러온 2022년을 돌이켜 보며 인민이 새겨안는 진리이다.

* * *

군력강화를 위한 길에 새기신

사랑의 자욱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조국을 수호하는 병사들이 있다. 그러나 조국에서처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인민군장병들이 하나의 뜻과 정에 의해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결합된 나라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가 믿는것은 대포나 미싸일을 비롯한 그 어떤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병사들이라고 하시며 병사들이 있는 초소들을 찾고찾으시었다. 그의 사랑은 멀고 외진 곳에 있는 초소의 병사들일수록, 위험한 최전방초소에 있는 병사들일수록 더욱 강렬하고 뜨겁다.

주체101(2012)년 8월중순 그이께서는 장재도에 대한 현지시찰을 진행하시었다. 이 섬은 조국의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것으로 하여 일군들은 절대로 가실수 없다고 간절히 아뢰이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그곳에 자신께서

외진 섬초소를 찾으시어 사랑을 안겨주시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가 걱정을 터뜨리는 군인들 주체101(2012)년



제일 사랑하는 병사들이 있다고, 그들이 있는 곳은 아무리 위험하다고 하여도 다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최전방섬초소로 향하시었다.

섬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군인생활문제들을 하나하나 알아보시고 필요한 대책들을 다 취해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이곳 군인들은 누가 보진말건 조국의 최전연섬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 혁명가, 애국자들이라고, 그들이 이 외진 섬에서 맞고보내는 날과 달들은 조국의 안녕과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애국의 하루하루이라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었다.

그이의 이러한 사랑의 이야기들은 적들과 총부리를 직접 마주하고있는 오성산의 까칠봉 초소와 적아간에 불과 몇십m를 사이에 두고 대치되어있는 판문점초소에도 깃들여있다.

주체101(2012)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어느한 비행군부대를 찾으셨던 길에 군부대장의 가정에 들리신적이 있었다. 그이께서는 군부대장의 안해에게 저녁식사를 준비하됐는가고 물어주시며 부엌과 살림방을 돌아보시었다. 친어버이와도 같은 그의 사랑에 군부대장과 그의 안해는 북받치는 걱정을 참지 못하고 그의 넓으신 품에 안겨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그이께서는 그들부

부가 자꾸 우는것을 보시고 분위기를 돌리시려는듯 가족사진을 보니 이 집에는 아들이 없고 딸만 3명 있다고,련대장은 딸부자라고 하시며 소탈하게 웃으시었다. 그이께서는 딸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있는가도 물어주시고 딸들이 공군부대에서 군관으로 복무하고있으니 아버지의 뒤를 이은셈이라고 하시며 대를 이어 조국보위초소에서 삶을 빛내여가고있는 그들의 가정을 축복해주시었다.

이뿐이 아니다. 언젠인가는 비행사들을 위한 대회장에서 한 비행사부부의 소청을 잊지 않으시고 갖래여난 아기의 이름도 몸소 지어주시었다.

최근년간에 진행된 열병식들에서 일신된 전투복장과 장구류를 착용하고 보무당당히 행진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모습은 세계 많은 나라의 군사전문가들의 관심과 초점을 모았다. 여기에도 인민군군인들을 보란듯이 더 잘 내세우고싶어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웅심깊고 다심한 어버이의 사랑이 깃들여있다.

조국인민들은 오늘도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시였던 그날을 잊지 못하고있다. 만세의 환호성이 진감하는 기념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지휘관들의 손을

잡고 팔과 팔을 힘있게 끼시던 그의 모습을 우러르는 전체인민의 가슴속에 뚫어번진것은 무엇이었던가.

일심단결의 력사를 개척하시고 그것을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내세워주시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이 어려와 뜨겁게 솟구치는 걱정이였다.

일심단결로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영원히 이어가시려는 그의 신념과 의지는 전체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을 하나로 더욱 굳게 묶어세웠다.

정녕 병사들을 위하시는 그의 사랑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병사들사이에 맺어진 혈연적인 관계는 군력강화의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사회주의조국이 무적필승의 강군을 가진 나라로 위용떨치고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승리를 안아올수 있는것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와 병사들이 서로 뜻과정이 통하고 생사고락을 같이하기때문이다.

병사들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천하제일명장을 높이 모시였기에 조선인민군은 언제나 필승불패할것이다.

본사기자

기쁨과 슬픔

(전호에서 계속)

우리가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한지에서 밥도 해먹고 잠자리를 정하는것을 본 려수문로인은 나를 찾아와 부대가 다움직이기 곤란하면 대장만이라도 자기 방에 가서 류숙하자고 권유하였다.

《성주선생이 나하구 생판 모르는 남남이라면 몰라도 우리가 구안도에 있을적부터 서로 낯을 익혀온 사이가 아닙니까.》

로인은 나까지 그렇게 에누리를 하지 않을줄은 몰랐노라고 하면서 한참이나 섭섭한 소리를 하였다.

사실 나와 그 로인은 서로가 구면이었다. 우리 집 식구들이 마춘옥의 객주집 옷방에 거처하고있을 때 나는 거기서 려수문로인을 두세번 본적이 있었다. 그때 로인이 보여준 활달하면서도 열정적인 기품이 내인상에 지울수 없는 흔적을 남겨놓았다.

로인은 항일을 하려고 천리원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군대가 한지에서 숙식을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불속에 기여들어가겠는가고 하면서 밤이 깊도록 우리의 말동무를 해주었다.

류가분방사람들이 대체로 그

런것처럼 그도 시국에 민감하였다. 그는 9.18사변후 일본군대가 만주국이라는 괴뢰국가를 조작해냈다는것과 장춘을 신경이라 고쳐 수도로 정하고 거기에 부의를 데려다 앓혔다는것까지도 다 알고있었다.

로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것은 안중근에 대한 이야기이다.

로인은 말하기를 조선의 렬사들 가운데서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위인은 안중근이라고 하였다.

《안중근선생이야말로 동양의 거인이지요. 오죽하면 원세개대총통까지 안의사의 의거를 칭송하는 시를 지었겠지요.》

로인의 이 말은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격살한 다음부터 만주지방의 중국인들속에서 그는 전설적인 존재로 알려지게 되었다. 어떤 중국인유지들은 집에 안중근의 화상까지 걸어놓고 신주처럼 모시었다.

《로인님은 조선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되어 안중근을 그리도 잘 아십니까?》

려수문로인은 안중근에 대하여 너무도 큰 애정을 가지고 말하므로 나는 슬며시 이렇게 물었다.

《만주에 사는 사람치고 안

중근을 모르는이가 있습니까. 오죽하면 할빈역에다가 안렬사의 동상을 세우자고 말한 사람까지 있었겠지요. 나는 지금도 자식들에게 늘 말하군 합니다. 혁명가가 되겠거든 손중산 선생과 같은 혁명가가 되구 대장부가 되겠거든 안중근과 같은 대장부가 되라구 말이웨다. 김대장님, 이왕이면 부대를 무슨바엔 관동군사령관과 같은 거물들을 요정내지 못합니까?》

나는 로인의 순박한 말을 듣고 미소를 짓지 않을수 없었다.

《그까짓 관동군사령관이나 하나 없애버려서는 무엇하겠습니까. 이등박문을 죽이면 새로운 이등박문이 나오듯이 혼조를 죽이면 새로운 혼조가 또 나올게 아닙니까. 테로로써는 큰일을 치지 못합니다.》

《그럼 대장어른은 어떤 방식으로 싸울 작정입니까?》

《관동군이 십만이 된다니 그 십만을 상대로 싸울 작정입니다.》

려수문로인은 그 말을 듣더니 몹시 감격하여 내 손을 짝 그러잡고 놓지 않았다.

《김대장, 참으로 훌륭하시오. 대장어른이야말로 안중근과 같은분이 아니겠소.》

나는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나는 안중근이처럼 훌륭할수는 없지만 망국노의 생활은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다음날 유격대가 마을을 떠날 때 려수문은 우리와 헤어지는것이 아쉬워서 멀리까지 대오를 바래주었다. 나는 류가분방을 생각할 때마다 려수문로인을 만났던 때의 일을 뜨겁게 되새겨본다.

류가분방을 떠난 우리 부대는 이도백하부근에서 다시 하루밤 숙영하고 도로를 따라 행군을 계속하다가 무송에서 안도방향으로 이동하는 일제침략군의 척후대와 불시에 조우하였다. 우리는 행군할 때마다 대오의 앞장에 3~4명의 인원으로 편성된 척후대를 배치하곤 하였는데 그 척후대와 일본군의 경계구분대사이에 화력전이 벌어지고있었다.

솔직히 말하여 우리는 그때 몹시 당황하였다. 유격대가 창건된 후 처음으로 당하는 조우전이였고 또 그것도 무적을 자랑하는 일본군대와외 첫 싸움이였기때문이다. 소영자령에서는 우리가 사전에 면밀히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매복전으로 적들에게 선제타격을 가하였지만 여기서는 문제가 달랐다. 상대는 어수룩한 위만군이 아니라 실전경험

이 풍부한 영악하고 민첩한 일본군이였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단 한번의 전투경험밖에 없는 초학도들이였다.

우리로 말하면 아직은 조우전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때였다.

원정의 목적으로 보나 유격전의 기본원칙으로 보아도 장거리행군과정에는 될수록 아군의 행동에 불리한 영향을 줄수 있는 무익한 충돌을 피하는것이 좋았다. 옛날병서에서도 《피실격허》라고 하였다. 강한 적은 피하고 약한 적은 치라는 말이다.

그런즉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전부대가 긴장한 표정으로 내 얼굴을 주시하고있었다. 나의 결심을 기다리는것이였다. 나는 적의 기본력량이 들이닥치기 전에 유리한 지형을 먼저 차지하는것이 전투의 주도권을 틀어쥘수 있는 최선의 방도라는것을 간파하고 척후대가 총격전을 벌리고있는 고지 북쪽릉선으로 부대를 재빨리 이동시켰다. 그다음 일부 려량을 도로 남쪽으로 진출시켰다. 부대는 도로의 남쪽과 북쪽에서 일제사격으로 척후대를 죽였다.

적의 행군중대가 미구에 장구류들을 잔뜩 짊어지고 신작

로로 달려오고있었다. 얼핏 보기에도 한개 중대는 잘되였다. 적들은 척후가 녹아났다는것을 알고 우리를 포위하려 하였다.

나는 신호총을 울리기 전에는 절대로 사격을 시작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고 적들이 화력권안에 들어올 순간을 기다리면서 전방을 감시하였다. 우리에게는 탄알이 얼마 없었다.

내가 신호총을 쏘자 전 부대가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였다.

나는 사방으로 터져오르는 총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대원들의 정신상태를 가늠하려고 애썼다. 그 개개의 총성에는 흥분되고 양양된 상태에 있으면서도 분별을 잃고 헤덤비는 전사들의 기분이 그대로 반영되고있었다.

적들은 무리죽음을 당하면서도 려량상 우세를 믿고 신속히 전투서열을 갖추면서 아군이 차지하고있는 진지랑측으로 맹렬하게 공격해왔다.

나는 도로 북쪽과 남쪽에 배치된 주력가운데서 일부 려량을 떼내어 아군의 량익측으로 재빨리 기동시키였다. 대원들은 진지를 차지하기 바쁘게 민속한 저격전으로 익측의 적들을 모조리 소멸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인민은 장군님의 하늘

민족의 아버지를 잃고 온 조국땅이 피눈물에 잠겼던 12월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산천이 변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조국인민들의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강렬해지고있다.

그 그리움은 한평생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온넛과 심혈을 다 바쳐오신 그이에 대한 가장 숭고한 감정이다.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인민이라고, 인민이 있어 나라도 있고 조국도 있다고 하시며 혁명령도의 첫시작을 인민들속에 들어가시는것으로부터 시작하시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시며 혁명가로서, 인간으로서 겪을수 있는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시면서도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

일찌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내놓으신 그이께서는 그것을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정열을 다 바치시였다. 지금도 인민들이 좋아하는가고, 인민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인민을 위해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던 그이의 음성이 들려오는듯싶다.

제품 하나를 보시면서도 인민들이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

으시면 그러도 기뻐하시고 살림집시공이나 공장관리운영을 알아보실 때에는 인민들의 생활상 조건과 로동조건부터 헤아리시며 그들에게 제일 좋은것으로, 가장 훌륭한것으로 보장되도록 하시고 그를 위해서는 타산을 모르신 그이이시였다.

주체68(1979)년 4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느한 협의회를 소집하시였을 때였다. 당시 일군들은 새로 효모공장을 건설하는 문제를 놓고 자금사정을 타산하면서 두고보다가 시작하자고 제기하였다.

한동안 일군들의 의견을 심중히 들어주시던 그이께서는 물론 공장을 하나 짓자면 타산을 해박야 하지만 수관알로 계산만 하면 인민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다, 모두 자기 어머니를 생각해보라, 천이 없으면 자기 단벌옷이라도 뜯어서 자식들에게 웃을 해입히고 쌀이 없으면 자기 머리태를 잘라 팔아서라도 자식들에게 밥을 해먹이는것이 우리 어머니들이다, 이런 타산을 모르는 사랑을 가져야 인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해줄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밀지는 장사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인민을 위해서는 밀지는 장사도 해야 한다, 인민을 위해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자는것이 나의 산수이고 우리 당의 계산방법이라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언제인가는 얼음장우에서 표류당하던 한 처녀를 위해 비행기를 띄우도록 해주시고 구원

되였다는 보고만을 기다리겠다고 하시며 한밤을 꼬박 새우기도 하시였으며 세명의 자매도아이들을 위해 분교를 세우도록 하시고 깊은 산골의 한 두세대를 위해 TV중계탑도 세워주도록 하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조국과 인민을 그토록 사랑하시였기에 그이께서는 지난세기 1990년대중엽 천만뜻밖의 민족의 대국상과 련이어 들이닥친 자연재해를 기화로 적대세력들이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키려고 할 때 조국과 인민을 지켜 단호히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였다. 시련의 그 나날 인민들이 식량난, 전기난으로 고생하는 광경을 그 누구보다 가슴아프게 보시면서도 선군의 길을 택해야만 했던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은 무엇으로도 형언할수 없는것이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다시는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평화와 행복속에 살게 하기 위하여 선군의 길을 택하시였던것이다.

그 길에는 세찬 눈보라와 강추위도 있었고 위험천만한 최전연초소며 아찔한 낭떠러지로 야전차의 바퀴가 미끄러져내리던 아슬아슬한 오성산의 칼벼랑길도 있었다.

오로지 인민의 운명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여야 인민의 행복을 안아올수 있다는것을 자신의 최대의 사명으로 간주하시고 그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였기에 그이께서는 언제인

가 일군들이 드리는 소박한 지성마저 마다하시며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인가, 나도 동무들과 같이 인민의 심부름군이다, 아직은 우리 인민들이 남들처럼 잘살지도 못하는데 인민을 생각해야지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면 안된다고 엄하게 질책하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재촉하시였다.

인민을 위한 열화와 같은 사랑을 안으신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조국땅에서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 《광명성-2》호가 우주에 오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가 펼쳐지게 되였으며 조국은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오르게 되였다.

인민의 운명과 존엄을 굳건히 지키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부강번영을 이룩할수 있는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그이께서는 만년시련을 이겨낸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서 가장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였다. 주체98(2009)년 한해만 돌이켜보아도 그이께서 정초부터 불과 100일도 안되는 기간에 찾으신 단위는 그전에 같은 기간에 비해 4배에 달하였고 그 로정은 장장 수만리에 달하였다. 이 나날 그이의 렬차행군거리는 10년동안의 렬차행군거리와 맞먹었다. 어떤 날에는 하루에만도 4~5개 단위를 현지지도하신 그이께서는 그해에 200여개나 되는 전국각지의

여러 부문 단위의 사업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이러한 그이의 현지지도를 두고 외신들은 《김정일총비서의 올해 동정보도 과거 최고를 기록》, 《김정일령도자의 2009년 활동보도건수 최고기록》이라고 련일 보도하였다.

년대와 년대를 이어오는 그렇듯 초인간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이 있어 조국땅에서는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토지정리와 자연흐름식물길공사, 간석지건설이 추진되고 농촌경리에 직접적으로 복무하는 화학공업을 비롯하여 금속공업, 기계공업 등 중요공업부문의 주체화, 현대화를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그리고 CNC공작기계생산의 높은 경지가 개척되었으며 전국도처에 경공업공장들과 축산기지, 과일생산기지, 양어기지들이 일떠서 인민들을 기쁘게 하였다.

인민들이 좋아하며 기뻐하는 것을 보실 때면 그이께서는 더없는 보람을 느끼시며 더 많은 일을 하실 결심을 다지곤 하시였다.

언제인가 새로 개건된 어느한 닭공장에서 생산한 닭고기를 공급받은 인민들이 매우 좋아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더없이 만족해하시며 그길로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신 그이이시였으며 새로 지은 장강군의 어느한 농장마을의 살림집들에 가시어서는 기

뻐하는 농장원들과 함께 귀중한 시간을 보내신 그이이시였다.

그런 날과 달은 수없이 많고 많다.

자강도에 가면 구봉령에 새겨진 사랑의 전설이 있고 대흥단에 가면 흥단이, 대흥이의 이름과 더불어 꽃피난 이야기가 있으며 삼수에 가면 발전소건설에 앞서 침수지역 인민들을 위한 살림집부터 먼저 지어주게 하신 뜨거운 사연이 있다.

그런 가슴뜨거운 사연은 그이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계속되였다. 사실 그이께서 뜻밖에 서거하신 주체100(2011)년 12월에 의사들은 눈물을 머금고 위대한 장군님께 25일까지는 특별히 건강에 주의하셔야 한다고 하면서 현지지도를 하시지 말것을 간절히 아뢰였다. 하지만 밤이나 낮이나 인민들생각으로 온넛을 불태우신 그이께서는 함경남도에 대한 현지지도에 이어 생애의 마지막날까지도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인민을 위해 자신을 초월처럼 태우신 위대한 인민의 아버지이시였다.

하기에 조국인민은 위대한 태양의 모습을 영원히 잊지 못해하고있는것이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그이의 유훈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고있는것이다.

한명국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로

후대들을 위한 시책

인민의 행복을
락으로 여기시며

주체100(2011)년 12월 4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찾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오늘은 개선청년공원 유희장의 관리운영정형을 직접 료해하여보려 한다고 하시고 나서 유희시설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지금까지 사고난적은 없는가, 유희시설료금은 얼마인가 등 그이께서 관심을 가지시지 않은 문제란 없었다.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인민을 위해 일요일 추운 날에 또다시 유희장을 찾아주시어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올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것이 자신의 락이라고 하시었다.

친히 붙여주신 경성

주체100(2011)년 12월 15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양시에 현대적으로 꾸려진 광복지구상업중심을 찾으시었다.

그이께서는 매 층의 매장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인민들에게 안겨질 상품들의 가지수와 진렬상태, 판매계획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며 우리 인

민들에게 좋은 상품들이 많이 차례지도록 할데 대하여 간곡히 이리시었다.

갖가지 상품들이 가득찬 매장들을 둘러보시며 그이께서는 광복지구상업중심이 평양제1백화점보다 더 흥성거리게 하기 바란다 고 하시었다.

이어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어느 봉사단위가 사람들을 더 끄는가 경쟁해보아야 하겠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광복지구상업중심과 평양제1백화점이 서로 경쟁하면 결국 인민들에게 더 많은 상품이 차례질것이라고 하시었다.

인민들에게 더 많은 상품이 차례지게 하는 경쟁.

바로 이것이 그이의 웅심깊은 뜻이었다.

그이께서는 떠나시면서 다시금 이곳 일군들에게 평양제1백화점에 지지 않도록 일을 잘하라고 사랑넘친 당부를 하시고서야 차에 오르시었다.

마지막으로 보아주신 문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주체100(2011)년 12월 16일 밤이었다.

전날 불편하신 몸으로 하나음악정보센터와 광복지구상업중심을 현지지도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날 밤에는 밤대로 집무를 보시었다.

그중의 하나가 인민들을 위한 물고기공급과 관련한 문건이

였다.

사실 나라가 경제적어려움을 겪기 전까지만 해도 인민들은 명절날은 물론 어느날에도 여러가지 물고기를 먹을수 있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는 그렇지 못하였다.

그이께서는 이러한 실태를 두고 마음쓰시면서 물고기생산을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해주시는 한편 명절때면 다른 나라에서 물고기를 들여다가라도 인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하시었다.

이해에도 그런 다심한 은정을 베풀어주신 그이이시었다.

전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그이께서는 명태와 청어를 들여다 평양시민들에게 팔아주었는데 시민들이 대단히 좋아하였다고, 나는 인민들이 좋아할 때가 제일 기쁘다고, 이번에도 지난해와 같이 명태와 청어를 들여다 새해를 맞는 평양시민들에게 팔아주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인민을 위해 로고를 다 바치시는 그이의 숭고한 뜻을 사무치게 느끼며 일군들은 즉시 물고기공급과 관련한 대책안을 세워 그이께 보고올리였다.

그이께서는 렬차를 긴급동원하여 물고기를 수송하도록 친히 대책까지 취해주시고 문건에 비준하시었다.

그것은 그이께서 인민을 위해 마지막으로 수표하신 문건이었다.

*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

주체88(1999)년 7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제 1 장 교
제 2 장 전
제 3 장 교
제 4 장 교
제 5 장 교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가 제정한
법령들의 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주체 101 (2012)년 9월 9일 제 9호

조국에서는 아이들이 국가의 민회의 제5기 제6차회의에서 보살핌속에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다. 이것은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드는 조국의 사회주의적시책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돌이켜보면 조국의 력사는 후대들을 위한 공산주의적시책이 펼쳐진 력사였다고 할수 있다. 해방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첫 회의 의정으로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연필문제가 토의된 때로부터 조국에서는 시종 일관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국가의 최중대사로 내세웠다. 주체65(1976)년 4월 최고인

민회의 제5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이 사회주의로동법(1978년), 인민보건법(1980년)보다 먼저 채택된것만 보아도 후대들에게 기울이는 국가의 관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후대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로 내세우고있는 조국에서는 무료의무교육제를 국가의 중요시책으로 실시하고있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무료교육의 고귀한 경험과 전통을 마련한데 기초하여

조국에서는 주체38(1949)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4차회의에서 《전반적초등의무교육실시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으며 주체45(1956)년부터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였다. 그후 주체47(1958)년에는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를, 주체56(1967)년부터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제를, 주체61(1972)년부터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제를 실시하였다. 주체101(2012)년에는 보다 높은 형태인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에 관한 법령이 발표되고 실시되였다. 조국에서는 국가가 학부형

조국에서는 학생들의 교복과 책가방, 학용품생산을 국가가 맡아하고있다.



이 되어 후대들의 교육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다. 무료교육시책도 그 실례의 하나이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무료교육은 수업료 등을 폐지한 것만을 내용으로 한것이 아니다.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해 주기 위해 늘어나는 학생수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학교 건설을 앞세우고있으며 교원양성과 교과서출판인쇄, 교구비품의 생산과 학교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방대한 재정적 및 물질적투자도 국가가 부담하고있다.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과 실험실습은 물론 과외활동, 답사와 견학, 야영생활을 위한 비용까지도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고있다.

평양가방공장과 민들레학습장공장, 룡봉학용품공장, 개진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공장들과 청소년과의교양거점들, 과외생활기지들은 조국의 후대관, 미래관을 잘 보여주고있다. 학생이 있는 곳이라면 외진 섬마을에까지 학교가 건설되고 교육에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와 교원양성기지가 튼튼히 꾸려져있어 조국은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로 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조국에서는 국가부담으로 학생들에게 교복을 해입히고있다.

지난 세기 90년대 제국주

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으로 하여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속에서도 후대들에게 교복을 해입히는 사업은 중단없이 진행되었다. 특히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후대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아이들에게 교복을 해입히는것은 조건이 좋으면 하고 어려우면 못해도 무방한 사업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으로 되고있다.

후대들에 대한 교육사업은 전사회적, 전인민적지원속에 진행되고있다.

조국에서는 많은 기관, 기업소, 농장들이 후원단체가 되어 학교들을 물질적으로, 로력적

으로 적극 도와주고있다. 후원단체의 책임일꾼들은 정상적으로 학교에 나가 교육사업에서 제기되고있는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그 해결을 위해 발벗고나서고있다.

이와 함께 해마다 3월과 10월 각 도, 시, 군들에서 진행되는 교육지원전시회는 전사회적인 지원열의를 더욱 높여주는 좋은 계기로 되고있다.

이렇듯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국가가 학부형이 되어 따듯이 보살펴주고있기에 조국땅에서는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련련히 울려 퍼지는것이다.

본사기자



효능높은 고려약을 더 많이

고려약생산의 과학화, 현대화를 실현하여 우리 인민들의 체질에 맞는
고려약들을 생산하고있는 강계고려약가공공장을 찾아서

자강도 강계시에는 강계고려약가공공장이 자리잡고있다.

수십년의 년륜을 새겨온 공장은 지난 기간 자기 지방의 풍부한 약초들로 고려약들을 생산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미 오래전에 고려약엑스생산의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한 공장에서는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자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최근년간에만도 공장은 개건공사를 진행하여 자기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고려약생산의 과학화, 현대화수준을 보다 높였다.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포장에 이르기까지 생산공

정의 무균화, 무진화가 실현된 공장에서는 여러가지 효능높은 고려약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효능높은 약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도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지금 공장에서는 삼지구엽초엑스, 찔팡이엑스, 가시오갈피엑스, 생당쑥엑스, 미나리엑스를 생산하고있으며 그것을 리용하여 만든 의약품들의 질은 GMP의 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으로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지금 공장에서는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고려약생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황정혁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하여

조국의 도시와 농촌 그 어디라 할것없이 물원천이 있는 곳에서는 양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평안북도 구장군 읍에서 2km정도 떨어져있는 곳에 있는 구장양어사업소도 이러한 단위들중의 하나이다.

동통샘물이 흘러내리는 주변에 터를 잡은 사업소는 물고기를 기르기에 아주 적합하다.

샘물의 온도는 사시절 변함없이 13℃이다.

사업소의 야외와 실내에 꾸러진 100여개의 못들에서는 칠색송어, 철갑상어, 잉어를 비롯한 냉수성, 온수성물고기들이 육실거리고있다.

뛰어오르는 물고기들과 물속에서 헤엄쳐다니는 물고기떼들은 보기만 해도 흐뭇한 광경이다.

사철 양어생산을 중단없이 내밀고있는 구장양어사업소의 오늘은 절로 마련된것이 아니다.

지난 기간 이곳 종업원들은 물고기생산량을 늘이기 위해 우량품종을 확보하는것과 함께 사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도 현대화하였다.

기술자들은 먹이를 적게 먹으면서도 빨리 자라는 우량품종의 물고기종자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확보하였다. 최근시기에는 종업원들이 모두 떨쳐일어나 양어장의 면적을 종전보다

1. 2정보 더 확장하였다.

그리하여 초기에는 냉수성물고기만 양어하던 사업소에서 몇년전부터는 온수성물고기도 기르고있다.

이곳에서는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들과의 협동하에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활발히 벌리였다. 양어못들에 산소발생기들과 알맞는 물온도와 폐하, 산소량을 정확히 보장하기 위한 측정기들을 설치하여 수질을 오염시키는 물질들을 제때에 제거하고있다.

뿐만아니라 통합생산체계를 받아들여 양어의 전반적공정들을 감시 및 조종하고 관리운영하고있으며 팽화먹이, 미생물발효먹이를 생산할수 있는 토대도 마련해놓았다.

오랜 기간 이곳에서 일하고있는 성호영작업반장을 비롯한 양어공들은 공정별로 물고기들에 대한 사육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물고기들의 사름률과 증체률을 높여나가고있다.

현재 구장양어사업소는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양어사업소들중의 하나로 되고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물고기들은 도와 군내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공급되고있다.

박명길지배인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사업소는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하여 늘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발자취가 여러 차례나 새겨진 곳입니다. 우리는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현실로 꽃피워나가겠습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엄향심



민족예술발전을 추동해간다



75년의 연혁을 가지고있는 국립민족예술단은 조선민족이 역사적으로 창조하여온 우수한 민족음악무용유산들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조국의 관록있는 예술단체이다.

오늘도 조국인민들뿐 아니라 해외동포들은 지난세기 80년대말 성황리에 공연되었던 민족가극 《춘향전》을 기억하고있을것이다.

음악과 무용, 기악 등 무대예술을 짙은 민족적색채속에서 훌륭히 형상한 이 가극은 예술단에서 창립(1947년)후 세번째로 창조한것이다.

해방후 예술단에서는 가극 《전우직녀》(1947년)로 첫막을 올린데 이어 가극 《춘향》, 민족가극 《춘향전》도 창조공연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이러한 예술활동은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책동으로 빛을 잃었던 민족예술을 되살리고 우수한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

국립민족예술단에서는 력사소설인 《춘향전》이 가지고있던 제한성과 지난 시기에 창조하였던 가극 《춘향》(1948년)과 민족가극 《춘향전》(1964년)에 남아있던 낡은 틀, 복고주의적요소들을 완전히 극복하고 민족가극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국립민족예술단에서 민족가극 《춘향전》을 훌륭히 완성할수 있는것은 이곳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피바다》식가극창조원칙이 구현된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1972년)와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1973년)를 창조한 그 기풍을 그대로 이어온데 있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민족가극 《춘향전》은 내용과 형식에서 손색이 없는 민족가극의 본보기로 창조될수 있었다.

이곳 예술단에서는 민족고전주제의 가극만이 아니라 민요를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 혁명적이며 시대적인 내용을 담은 무용작품들도 내놓았다.

조선의 4대명작무용들의 하나인 무용 《사과풍년》을 비롯하여 무용 《양산도》, 무용 《장고춤》, 민속무용조곡 《평양성사람들》 등은 민족성이 뚜렷하고 조국인민의 사상감정을 예술적물동으로 잘 형상한 무용작품들이었다.

이 나날 예술단에서는 리종오, 리면상, 성동춘, 조령출, 왕선화 등 민족음악발전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재능있는 창작가, 예술인들을 수많이 배출하였다.

국립민족예술단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예술교류활동을 하는 기회에 조선민족예술의 우아함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을뿐만아니라 그들에게 조선에 대해

잘 알게 하고 해외동포들에게는 애국적이며 민족적인 감정을 안겨주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곳 창작가, 예술인들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조국에 온 해외동포예술인들의 예술적기량을 높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였다.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예술단 성원들이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에 울리어 금상을 쟁취하였던 무용 《마식령의 메아리》는 이곳 안무가들의 노력에 의하여 완성된것이였다.

국립민족예술단은 민족예술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김일성훈장》(1974년)을 수여받았다.

오늘도 국립민족예술단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자기의 개성을 살려 민요, 음악, 무용 등 각 방면에서 민족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면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리듬, 선율, 룰동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연출가 리성은 《민족예술은 우아하고 아름다우며 소리색깔이 맑은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민족적인 것을 장려한다고 하여 옛것을 그대로 답습하여서는 안된다. 민족예술이 사람들속에서 호평을 받고 인기를 끌게 하자면 그 종류와 형식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예술단의 모든 성원들은 민족음악편곡에서 원곡의 고유한 음조와 독특한 색깔, 장단을 잘 살리며 새로운 음악적표현수법들을 적극 찾아내고 적용하고있다.

그들은 지난 시기에 창조하여 공연무대에 올렸던 민요독창, 민요2중창, 가야금병창같은 민족음악형식들뿐만아니라 북, 팽파리, 징, 장고와 같은 무음정민족악기들로 새로운 기악연주형식인 민족타악기제주도 완성하였다. 새로운 형식의 작품은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이러한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이곳 창작가들과 예술인들은 장새납3중주와 민족타악기제주, 소해금독주와 민족타악기제주 등 내용과 형식을 바꾸어가며 인민들의 미감에 맞는 작품들을 련이어 창조하여 무대에 올리고있다.

민족적정서가 짙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민족무용들을 현실적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시킨 무용조곡 《황금의 내 나라》, 음악무용시 《<아리랑>이 전하는 이야기》도 최근년간 예술단에서 내놓은 성과작들이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단장 진국송:

《민족예술을 장려하고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들에게 애국의 마음을 심어주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고있다. 우리 예술단의 창작가, 예술가들은 앞으로도 민족적미감과 정서가 한껏 살아나는 새 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합쳐갈것이다.》



숲과 함께 이어지는 삶

숲이 푸르리질수록 조국의 재부도 늘어난다.
- 강영수가정의 산림감독원일지중에서 -

평안북도 운산군산림경영소 북진로동자구 산림감독원 강영수의 집안은 대를 이어 숲을 가꾸어오는 가정이다.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주체42(1953)년부터 산림보호원(당시)으로 일하였던 그의 아버지 강운경은 벌거숭이가 되었던 북진지구의 산들에 울창한 수림을 조성함으로써 나라의 첫 공훈산림공칭호를 수여받은 공로자이며 그를 원형으로 한 예술영화 《숲은 실레이다》도 창작되었다.

아버지의 성실하고 근면한 삶은 자식들의 성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하여 맏아들 강영근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숲을 가꾸다가 순직하였으며 그후 북진체신분소 분소장으로 사업하던 둘째아들 강영수도 산림감독원이 되었다.

담당구역의 나무들을 자래우는것과 함께 산불과 병해충 등에 의한 산림과피를 막기 위해 하루같이 산밭들을 오르내려야 하는 산림감독원의 일은 결코 험한것이 아니다.



산림경영소 종업원들과 함께 숲을 가꾸고있는 강영수의 아버지 강운경(가운데)
1980년대 촬영





더우기 그가 산림감독원을 하겠다고 자진하였을 당시 이곳의 산림은 여러해째 계속된 자연재해로 하여 적지 않게 손상되었었다.

강영수는 산림조성계획을 다시 새롭게 세웠다.

부족되는 나무모와 새 나무종자를 구하기 위해 머나먼 출장길도 마다하지 않았고 돌을 추어내고 거름을 내서 결국 집주변의 빈땅들에는 알곡이나 남새종자보다 나무씨앗을 더 많이 묻었다.

이렇게 키운 나무모들이 산들에 옮겨졌으며 한뼘두뼘 자라기 시작하였다.

대를 이어 고향의 숲을 훌륭하게 가꾸어가려는 그의 결심과 이악한 노력은 형제들을 감동케 하였다.

하여 다른 단위들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던 동생들은 물론 매부들과 형수, 제수들모두가 산림조성사업을 적극 도와나섰다.

마침내 북진로동자구의 2 700여정보의 산림은 군과 도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목재들을 보장하는 주요림지로, 산과실들

이 주렁지고 진귀한 약초들이 많으며 산짐승들이 육실거리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새롭게 전변되었다.

주체104(2015)년 강영수에게 공훈산림공칭호가 수여되었다.

그 다음해에 북진로동자구의 산림은 국가유용동물보호구로 설정되었다.

오늘 환경보호부문의 전문가들은 이곳의 산림이 그 조성에서나 자연부원의 생산, 유용동물의 보호증식, 생태환경의 유지 등 모든 지표에서 높은 수준에 있다고 평하고있다.

몇해전 신의주농업대학에서 산림학을 전공한 강영수의 맏아들 강철이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와의 한 일터에 섰다.

그는 《나라의 재부인 숲은 우리 가문의 자랑이기도 하다. 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푸른 숲에서 나의 꿈과 리상을 꽃피울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선경
사진 본사기자 황성혁
주체111(2022)년 9월 촬영





광복지구 상업중심

수도의 광복거리입구에 위치한 광복지구상업중심으로는 언제나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다.

30여년전 건립당시 광복백화점으로 불리웠던 이곳은 100여년전 자체봉사방식으로 운영되면서부터 오늘의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다.





현재 광복지구상업중심은 연건평이 1만 2 700여㎡이며 여러개 층에 방대한 량의 상품진렬능력과 보관능력을 가지고있을뿐 아니라 상품입고와 보관, 출고와 판매, 결제에 이르는 모든 봉사경영활동이 수자화, 정보화되어있다.

이곳의 상업봉사활동은 높은 편리성을 보장하고있다. 상업중심의 인기도는 이곳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의 질과 가격에도 관계되지만 그 가지수가 다종다양한데도 있다.

1층과 2층에는 조국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된 여러가지 식료품과 공업품들이 주류를 이루고있다. 특히 손님들속에서 호평이 높은 《대하》, 《경흥》, 《금첩》이라는 상표를 가진 식료품 등이 판매되고있는 1층에는 가정주부들의 발길이 끊길줄 모른다.

판매원 안향심은 이렇게 말하였다.

《보다싶이 인민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손님들은 여기에 있는 상품들의 대다수가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것이여서 더 좋아합니다.》

보통강구역 경흥동에서 사는 오인숙녀성은 《상업중심에는 상품의 가지수도 많고 가격도 눅습니다. 나는 휴식일마다 남편과 아이와 함께 이곳에 와서 함께 물건도 사고 식사도 하군 합니다.》라고 하였다.

봉사자들은 이곳을 즐겨 찾는 인민의 모습을 볼 때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그려보군 한다.

11년전 12월 이곳을 찾으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래도록 매 층의 구석구석에 있는 매장들까지 일일이 다 돌아보시고 일군들에게 상품들을 가득히 채워놓은것을 보니 추운 날인데도 마음이 후더워진다고 환하게 웃으시며 사회주의상업의 본질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데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이곳 일군들과 봉사자들은 이제라도 금시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에 들어서시여 인민들이 좋아하는가고 다정히 물어주실것만 같아 인민의 요구와 기호에 맞게 봉사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인민의 행복과 기쁨속에 바로 자신의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 하시며 인민들에게 제일 좋은것을 안겨주시려 늘 마음써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이 있어 이곳으로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길줄 모른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김영호, 리영철, 라평렬

《우리들의 길동무》

잡지 《금수강산》의 400호발행과 관련하여
해외동포들이 편집부에 축하편지들을 보내어왔다.

우리들의 길동무

잡지 《금수강산》은 곧 제400호를 발행하게 됩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동포들은 해외 동포들을 위한 잡지 《금수강산》편집부의 전체 일군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잡지 《금수강산》을 길동무로 여기는 재중동포 우리들은 잡지를 통해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어머니조국이 공장과 농촌들에서 거둔 성과들, 우주주순처럼 솟아나는 화려한 도시와 희한한 거리들, 조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불패의 혁명무력의 강한 힘, 행복에 넘친 조국인민들의 참모습을 생동하게 접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대한 상식들을 많이 배우면서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있습니다.

해외에서 살고있는 우리 동포들의 통일애국사업과 동포생활도 특색있게 편집하여 지면에 올려주는 《금수강산》잡지는 우리 재중동포들이 손꼽아 기다리며 환영하는 잡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금수강산》잡지는 다방면적인 지식을 주는 교과서이고 생활의 길동무이며 정신적량식입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수십 년동안 《금수강산》잡지를 동포대중의 길동무로 만들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온 편집부의 전체 성원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련합회는 잡지 《금수강산》의 400호발행을 다시한번 열렬히 축하하면서 편집부성원들이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금수강산》잡지에 전면적발전기의 력사적인 진군길에 들어선 조국의 현실을 동포대중에게 널리 선전하여 적대세력들의 온갖 제재와 봉쇄를 짓부시며 힘차게 전진하는 어머니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에 동포들이 자기들의 힘과 마음을 다 바치게 하는데 적극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사랑받는 우리 잡지

잡지 《금수강산》은 우리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전체 성원들의 사랑을 받는 출판물입니다.

해외에서 살고있는 우리들은 《금수강산》잡지를 통하여 조국의 새로운 발전모습을 시시각각 접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조국에서 새로운 성과들이 이룩되는 모습들을 《금수강산》잡지를 통해 알게 될 때마다 커다란 기쁨과 힘과 용기를 얻곤 합니다.

또한 조국의 가는 곳마다에 일떠서는 인민을 위한 봉사기지들, 무한한 행복감에 넘쳐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는 어린이들의 밝은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조국은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나라,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는 살기 좋은 사회주의락원이라는것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고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소식뿐 아니라 변화되는 국제정치정세와 우리 민족의 우수한 력사와 문화를 비롯하여 각 방면에서 우리 해외공민들이 알아야 할 폭넓고 다양한 지식들도 알기 쉽게 해설선전해주고있어 우리 경제인들모두는 누구나 이 잡지를 기다리며 즐겨 읽고있습니다.

《금수강산》잡지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끝없는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조국소식들을 더 많이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몸은 비록 해외에

살아도 《금수강산》잡지학습을 통해 조국의 사상과 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해나가겠습니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일군들과 회원들은 우리들에게 조국의 사상과 모습을 제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해주는 《금수강산》잡지 400호의 발행을 맞으며 편집부의 모든 성원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담아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조국의 숨결

《금수강산》잡지는 수십년간 우리 재중동포들에게 그리운 조국의 숨결을 전해주고있는 좋은 출판물입니다.

조국멀리 이역땅에서 살고있는 우리 재중동포들은 《금수강산》잡지를 통하여 조국의 모습을 잘 알고있습니다.

또한 《금수강산》잡지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풍습, 력사와 문화를 우리 동포대중속에 널리 선전함으로써 동포들의 절대적인 환영을 받고있습니다.

나는 《금수강산》잡지를 애독하는 사람으로서 잡지가 앞으로 날로 변모되는 조국의 소식들과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더 많이 게재하여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목단강 지구협회 회장 남초월

친근한 우리 잡지

《금수강산》잡지 400호발행

을 맞으며 편집부의 여러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조국의 수도 평양과 함경북도, 평안북도 등지에서 살고있는 친척들에 대한 기사와 사진, 편지를 지면을 통해 볼 때마다 너무도 기뻐 온 집안이 기쁨으로 흥성거렸습니다.

나는 해외공민조직일군으로서 잡지를 통해 조국친척들의 모습을 볼 때면 온몸에 힘이 솟곤 합니다.

악성전염병비루스와의 대전에서 짧은 기일안에 대승을 이룩한 일심단결의 좋은 미담들을 《금수강산》잡지를 통해 잘 알고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를 빌어 잡지편집부의 여러 선생님들이 건강하여 사업에서 더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목단강 지구협회 부회장 림명순

희망의 잡지

저는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학교를 다닌 재중조선공민 림순자입니다.

중국인민지원군이었던 남편을 따라 중국에 온지도 벌써 6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몸은 비록 해외에 있어도 어머니조국과 내가 살던 고향을 한시도 잊은적이 없습니다.

《금수강산》잡지를 펼쳐볼 때마다 크나큰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며 잡지편집부의 성원들과 기자선생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금할길 없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해외조선공민들에게 반

가운 조국소식을 안겨주는 희망의 잡지, 고마움의 《금수강산》잡지 발행 400호를 다시한번 열렬히 축하합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 협회 심양시지부 림순자

념원합니다

금수강산은 비단에 수를 놓은것처럼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뜻으로서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강토를 말합니다.

금수강산은 우리 조국강토이며 전체 조선민족이 살아가는 삶과 행복의 터전, 희망의 등대입니다.

발행 400호를 맞이하는 《금수강산》잡지는 우리 민족성원 모두에게 조국의 과거와 현재를 정확히 리해하도록 도모해주었으며 조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외동포들에게 나날이 변모되는 아름다운 고국의 모습을 전해주어 조국을 방문하고싶은 충동이 불쑥불쑥 들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잡지에서 친절하게 알려주는대로 민족음식도 해보며 참다운 민족문화가 꽃피고있는 조국의 현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잡지 《금수강산》이 우리 동포들을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주와 평화, 민족의 단합으로 애국, 애족, 애민의 활동에 나설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역할을 계속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미동포

취재수첩을 펼치고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체78(1989)년 8월 해외동포들을 위한 《금수강산》잡지 창간호를 발행하던 때가 엇그제같은데 오늘 이렇게 400호를 발행하게 됩니다.
지금도 묘향산 비선폭포를 배경으로 금수강산이라고 활달하게 제명을 쓴 잡지의 첫호를 받아두고 기뻐하였을 동포여러분의 모습이 눈에 선히 안겨옵니다.
돌아보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각별한 관심속에 창설된 본사편집부는 지난 30여년세월 《금수강산》잡지가 동포들의 친근한 길동무가 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편집부의 기자, 편집원, 번역원들은 중국과 로씨야 등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살고있는 동포여러분에게 조국의 소식을 알려주고 민족의 넋을 심어주기 위하여 정열을 기울이였습니다.
동포들도 알다싶이 민족의 위대성은 수령의 위대성에 달려있습니다.
하기에 우리 편집부는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 부강번영하는 강국의 미래를 안아오시기 위해 헌신과 로고를 다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업적을 널리 선전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폭넓게 소개하였습니다.
동포여러분은 잡지들에서 위민헌신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며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전해들으면서 가슴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을것입니다.
특히 세계적인 보건위기로 하여 조국앞에 최악의 시련이 닥쳐왔을 때 몸소 방역전의 최전방에 서시여 인민의 생명을 수호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모습을 비오면서 조국인민의 불굴의 정신과 불패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금 되새기며 배심든든해진 동포여러분이였을것입니다.
참으로 잡지의 폐지마다, 글출마다에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져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잡지의 매 호마다에 늘 조국에 마음을 두고 이역에 사는 동포들이 알고싶어하는 두고온 고향의 소식과 친척들의 안부, 전통적인 민족음식만들기, 풍습 등 다양한 소식들을 편집하였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며 비약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는 조국인민들의 모습도 여러가지 내용과 형식의 글과 사진들로 동포여러분에게 알려주었으며 조국의 찬란한 력사와 문화, 지리 등을 흥미있게 지면에 담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한편 동포조직들과의 연계밑에 민족성을 지키고 꽃피우는 동포들의 다양한 생활과 조국방문소식 등을 실어 우리 잡지가 명실공히 동포들을 위한 잡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정말 잡지에 반영된 하나하나의 내용들은 동포여러분의 마

음속에 약동하는 조국의 모습으로 자리잡았을것이고 새세대 동포들이 조국에 대하여 더 깊이, 더 정확히 알게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었을것입니다.
하기에 세월의 흐름과 함께 해외동포들의 대가 바뀌고 《금수강산》잡지편집부 기자, 편집원, 번역원들도 세대교체가 되었어도 잡지에 넘쳐흐르는 애국의 체취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동포들은 《금수강산》잡지의 열성독자일뿐 아니라 열성투고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성원들은 조국방문길에 오를 때마다 자기들이 쓴 글들을 잡지에 투고하였으며 재로씨야, 재도이췌란드, 재미동포들도 여러 기회에 자기들의 마음이 담긴 글들을 올리였습니다.
또한 잡지편집이 잘되도록 아낌없는 방조와 지원도 주었습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국장 김영희동포는 동포들속에서 전해지는 미담자료들을 계속 편집부에 보내왔으며 편집부의 기자들과 만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잡지를 본 소견도 나누곤 하였습니다.
중국 단둥시조선족련합회 회장 심청송동포는 《보고 또 보아도 계속 보고만싶어지는 잡지입니다. 잡지를 받으면 고향에서 온 편지를 받은것처럼 반갑고 한장두장 잡지를 번져보느라 조국의 숨결이 느껴집니

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중국 흑룡강성 김학식동포는 《금수강산》잡지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주고 생의 활력을 부어주는 보배이라고, 잡지의 갈피마다에는 우리 민족사의 유구성과 민족문화의 우수성, 조선민족의 지혜와 슬기가 력력히 숨배여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잡지를 받고나면 나 혼자 읽지를 않는다고, 이웃동포들에게 찾아다니며 조국의 기쁜 소식을 놓고 즐거움도 함께 나누고 조국의 어려움에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자고 토론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또래들에게 잡지에 련

재되는 조상전래의 옛이야기들과 명인들에 대한 일화도 들려주면서 후대들이 자기의 근본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창간호에서부터 400호에 이르는 지나긴 나날 《금수강산》잡지는 해외동포들의 친근한 길동무로 동포들의 마음속에 소중한 자리잡았고 널리 애독되게 되었습니다.
편집부는 《금수강산》잡지 400호를 발행하는 기회에 독자여러분에게 동포애적인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금수강산》잡지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방조를 준 동포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바입니다.
그리고 계속 잡지의 편집발행에 관심을 돌려주고 좋은 소재들과 이야기들을 편집부앞으로 더 많이 보내주어 잡지가 동포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친근한 길동무로 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금수강산》잡지는 동포들의 사랑을 받는 잡지로, 동포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조국의 모습으로 남아있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갈것입니다.

《금수강산》편집부



잡지 《금수강산》 편집성원들



오은별은 주제78(1989)년 우리 《금수강산》의 창간호인 8호에 소개된바 있다. 당시 그의 나이는 9살이었다.

《미술신동》의 오늘

33년전에 발행된 《금수강산》 창간호에는 《미술의 신동 오은별》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유년시절에 뛰어난 미술 재간으로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낸 오은별, 그가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있겠는지.

본사기자는 보다 구체적인 오은별의 성장과 후일담을 취재하였다.

오은별은 만수대창작사 조선화창작단에서 근 20년간 미술가로 일하고있었다.

우리앞에 나타난 오은별미술가는 40살을 넘긴 여성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주제78(1989)년에 소개되었던 어릴적모습이 다

분히 남아있었다.

우리의 취지를 듣고난 그는 웃으면서 추억의 문을 열었다.

《주제76(1987)년 9월 모스크바에서 국제어린이그림현상모집 당선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는데 7살 나던 나는 시상대에 제일먼저 올랐습니다. 그때 외국인들은 내가 그린 <츄츄는 학>, <우리모두 달나라구경가요> 등의 작품들을 보면서 엄지손가락을 내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국제상 수상자로 되었는지 그 비결을 알고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아버지가 나의 성장에 깃든 선생님들과 고마운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가 했던 말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라고 오은별은 말하였다.

은별이는 어릴 때부터 미술신동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어느한 창작사에서 미술가로 일하던 아버지의 재능을 그대로 넘겨받아서인지 걸음마를 떼기 전부터 손에 놀이감보다도 붓을 먼저 쥐었다. 2살 나던 해에는 주제사상탑의 형태와 특징을 비교적 선명하게 묘사해내었다.

은별이의 재능에 대한 소문은 삽시에 퍼져갔다.

은별이가 살던 평양시 선교구역 장충1동의 일군들과 타아소의 보육원들은 토의끝에 그를 유치원에 보냈다.

그의 그림솜씨는 날이 갈수록 늘었다. 은별이가 4살 때에는 평양미술대학의 조선화교원인 최성룡이 그의 개별과외수업을 맡아하였다. 그는 하나를 배워주면 둘, 셋을 받아들이고 화판에 형상해내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조선화기법의 하나인 물골법의 묘기를 터득하였다.

주제74(1985)년 4월 평양에서 진행된 전국청소년미술 및 수공예품전람회에 그가 내놓은 《가물치》외 5점의 그림은 물골법으로 사물의 전체적인 특징을 생동하게 형상해냈다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고 전람회에서 특등으로 평가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점차 해외에도 퍼지게 되었다.

제12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 그가 그린 그림이 널리 알려진 이후 주제76(1987)년에 있는 국제어린이그림현상모집에서 1등을 하고 주제78(1989)년에 있는 국제어린이그림현상모집에서는 특별상을 받았다.

뿐만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그의 개인미술전람회들이 진행되었으며 조국에서는 그를 소개한 화첩, 우표, 편지봉투가 발행되었다.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은 아이를 보면 그 집을 알수 있다고 하였는데 정말 오은별의 모습에서 조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재간등이 은별이에게 일생 잊지 못할 행복의 순간이 찾아왔다.

주제78(1989)년 12월 31일 평양시 학생소년들의 설맞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었던

것이다. 동행한 일군이 국제어린이그림현상모집에서 련거퍼우승한 오은별이라고 소개해드리자 그이께서는 그림을 잘 그린다고 치하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은별이가 그린 《황금도》를 보아주시고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재간등이들이 나올수 있다고, 참으로 재간이 있다고 하시며 기념사진도 찍으시였다.

그후 은별이는 금성제1중학교와 평양미술대학 조선화학부, 박사원에서 물골기법, 선묘법을 비롯하여 조선화의 여러 기법들을 더 파고들었다.

그는 대학시절에 조선화 《장군님 안녕히 다녀오시라》를 내놓아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였다.

이외에도 그는 평양미술대학 창립일을 맞으며 진행된 2차례의 전람회들과 주제91(2002)년에 열린 전국신인미술전람회에서 1등을 쟁취하였다.



대학졸업후 만수대창작사에 배치된 그는 1년만에 첫 작품으로 《삼복철의 깊은 밤에도》를 내놓았다. 작품은 그해에 진행된 국가미술전람회에서 1등으로 당선되었다.

그가 창작한 수많은 조선화들중에는 국가미술전람회를 비롯한 여러 전람회들에서 상장과 메달들을 수여받고 국가소장품으로 등록된 작품들이 적지 않다.

어린시절 화조화를 잘 그린 오은별은 오늘 만수대창작사에서 인물주제화를 잘 그리는 미술가로 손꼽히고있다.

언제인가 그를 찾았던 네델란드의 한 교수는 이름있는 만수대창작사에서 미술창작에 여념이 없는 그의 모습에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면서 그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갔다.

어느덧 그도 한가정의 주부로 되었지만 국제미술전람회와 더불어 유년시절에 외국에서 알게 된 많은 친구들과 서신거래를 가지고있다. 그중에서도 미술애호가이며 동갑이인 도이칠란드의 스산네 헨케는 오은별의 성공에 진심어린 축하를 보내며 안부를 전하고있다.

스산네 헨케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오은별은 그와 이런 마음속대화를 나누곤 한다.

《스산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 아름다운 꽃도 그것을 가꾼 원예사의 손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지 않니. 내가 아무리 미술에 천성적인 재능을 가지고있었다고 해도 그것을 찾아내고 키워준 선생님들과 고마운 제도가 없었



오은별이 창작한 조선화들이 미술전람회들에서 상장과 메달들을 수여받았으며 여러 작품들은 국가소장품으로도 등록되었다.



오은별이 창작한 작품들중에서

다면 어떻게 나의 오늘을 생각할수 있겠니? 하기에 나는 항상 보답의 마음을 안고 화판에 마주앉는다.》

오은별, 그는 오늘도 아름다

운 조국의 모습을 화판에 그려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리명국

조선몽맹경제문화교류사

조국의 롱인들과 맹인들의 경제문화활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체101(2012)년 12월에 조직된 조선몽맹경제문화교류사는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의 산하단위이다.

지난 10년간 교류사는 조선 롱인협회, 조선맹인협회, 조선손말통역원협회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롱인, 맹인관련 전반사업을 진행하였다. 교류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과 규정들, 장애자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롱인들과 맹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그들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고있다. 이를 위해 평안남도, 강원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여러 도들에 지역협회를 내오고 롱, 맹인들의 직업, 교육, 문화부문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수요를 장악하여 국가정책작성에 이바지하였으며 기술직업양성을 통하여 장애자들의 생산 및 생활조건을 끊임없이 개선하였다.

교류사에서는 조선손말의 표준화와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있으며 조선손말과 국제손말통역원을 양성하고있다. 그리고 롱, 맹학교들의 교육조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장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손말도서와 점글자도서의 출판과 손말자막편집물제작, TV에 손말자막도입 등 출판선전활동도 활발히 벌리고있다.

주체103(2014)년 5월 조선 롱인축구단을 조직한 교류사에서는 축구에 소질이 있는 롱인들에게 전문기술을 배워주어 그들이 국제무대에도 적극 진출하여 자기들의 재능과 기술을 발휘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이외에도 롱인건재제작소를 무어 장애자들이 생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고있다.

교류사에서는 롱인, 맹인관련 국제기구들과 세계 여러 나라 민족협회들과의 친선과 협조, 교류를 활발히 벌리고있다. 주체101(2012)년에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세계롱인련맹과

4개년활동계획을 리행하기 위한 량해문을 체결한데 토대하여 주체105(2016)년 세계롱인련맹대표단의 조선방문과정에 2단계 4개년활동계획을 토의한 교류사는 그 리행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해마다 9월에 진행하는 롱인 국제주간의 날 기념모임을 통하여 교류사는 국제기구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더욱 밀접히 하고 성과와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장애자사업을 발전시켜나가고있다.

현재 조선몽맹경제문화교류사는 롱인들과 맹인들의 교육과 여러 분야에서의 취업보장 등 일련의 사업들을 계획하고 적극 추진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지성



해마다 9월 롱인국제주간의 날을 맞으며 교류사의 주최로 기념모임들이 진행되고있다. 주체111(2022)년 9월 촬영



고향소식

김화군의 새 모습

당의 손길아래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여 군내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키고있는 김화군을 찾아서



해외에 살고있는 동포들은 아마도 강원도 김화군이라고 하면 그 지명이 별로 귀에 익지 않을것이다. 한것은 조국의 김화군이 면적상 그리 크지 않고 인구수도 적으며 소문난 물산도 별로 없는 곳이기때문이다. 그러하던 군이 오늘은 사람들의 래왕이 잦은 고장으로 되었다.

몇년전 이 고장은 뜻밖에 들이닥친 재해성폭우에 의해 살림집과 농경지 등이 혹심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인민군군인들과 군내 인민들이 힘을 합쳐 불과 40여일만에 피해를 가시고 군의 면모를 일신시켰었다. 당시 피해복구사업이 마감단계에서 진척되고있을 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곳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군인들과 군내 인민들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군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말씀을 주시였다. 그때부터 김화군은 자기 발

전의 새로운 큰걸음을 내짚게 되었다.

산과 강을 다스려

자연재해를 입은 후 김화군에서 제일 큰 힘을 넣은것은 국토관리사업이다. 특히 강하천을 다스리기 위한 사업을 선차적으로 내밀었다. 군의 주민들은 큰물위험대상들을 모두 장악한데 기초하여 하천들의 강바닥을 파내고 제방토량공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제방장식을 든든하게 쌓았다. 이와 함께 산골군의 자연지리적조건에 맞게 사방야계공

사, 다리공사, 산사태가 발생할수 있는 위험개소들에 대한 옹벽쌓기 등을 진행하여 군이 그 어떤 큰물에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다.

산들에는 창성이갈나무, 수유나무, 잣나무와 같은 경제적 수익성이 높은 나무들과 참나무, 다래나무, 약초 등을 군중적운동으로 심어 산림자원을 늘이였다.

군에서는 현대적인 양묘장을 건설하여놓고 나무모들을 충실히 자래웠으며 효능높은 성장촉진제를 자체의 기술력량으로 해결하여 사름률도 높이였다. 몇해어간에 군에서 새로 조

성한 산림면적은 수만정보에 달하며 이렇게 조성한 산에서는 해마다 적지 않은 목재와 산과일을 거두어들인다고 한다. 특히 수유나무림을 비롯한 수백정보의 나무림들은 군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공업의 기준, 본보기

오늘 김화군에는 지방공업발전의 기준, 본보기가 될 식료공장, 종이공장, 일용품공장, 옷공장이 번듯하게 일떠섰다.

군식료공장에서는 군에서 나오는 원료로 당과류와 기초식품을 비롯한 식료품생산을 정상화하고있으며 종이공장에서는 각종 종이제품들이 생산되어 군내 수요를 충족시키고있

다. 일용품공장과 옷공장에서 생산되는 각종 제품들 또한 그 질이 좋아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군일군의 말에 의하면 국가의 지원속에 공장들을 현대화할 때 원칙으로 삼은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자기 지방의 특성과 수요에 따르는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타산을 세운데 기초하여 군의 원료원천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는 원칙에서 군내 인구수와 수요에 맞게 생산능력과 규모, 제품을 선정한 것이다.

군에서는 이를 위해 주민들의 수요를 장악하는 한편 수요가 높은 제품들을 군의 원료로 더욱 다종다양하고 질 좋게 만들기 위한 방안도 연구하고 주

민들속에서 어떤 소비품을 더 요구하고있는가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았다고 한다.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부족한 제품들은 필요한 설비를 새로 제작하여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생산공정의 현대화, 흐름선화와 함께 환경보호형, 절약형의 생산공정확립도 어길수 없는 원칙으로 삼았다.

군식료공장에서는 손로동을 완전히 없애고 전반적인 생산공정에서의 현대화, 흐름선화를 실현하여 제품의 질과 위생안전성을 높이었다.

군종이공장에서도 다용도 초지기를 제작하여 생산효율을 높이고 경영활동에서도 실리를 얻고있다. 그리고 시약을 전혀 쓰지 않고 전반생산공정에서 물을 재이용함으로써 환

경을 보호하고 생산원가도 대폭 낮추고있다. 뿐만아니라 가량일팔프, 우무가사리팔프생산공정도 확립하여 각종 종이제품들을 생산하고있으며 목재도 절약하고있다.

오늘 이곳 사람들이 이룩한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경험은 전국의 시, 군들이 도달하고 따라배워야 할 기준으로, 본보기로 되고있다.

인기를 모은 제품들, 누구나 찾는 고장

생산을 시작한지 불과 얼마되지 않은것으로 하여 도와 전국적범위에서 김화군제품들은 선보일 기회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전시회때마다 김화군전시대는 참관자들의 인기를 집

중시키였다.

산간지대의 향취가 느껴지는 머루단물, 돌배단물을 비롯한 음료들, 고추장, 단죽임과 사탕, 과자 등 갖가지 식료품들을 보며 참관자들은 누구나 김화군제품이 옹기옹기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고 한다.

전시회가 끝나기도 전에 준비해온 제품들이 다 팔려 긴급수송을 조직한것이 여러번이라고 한다.

질이 좋고 포장이 세련되었으며 가격이 낮은것으로 하여 깊은 인상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비결을 물어보군 하며 그 답을 찾기 위해 이 고장을 찾아오고있다.

그들은 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을 커다란 관심속에 돌아보며 배우고있다. 그리고 돌아갈 때

는 기쁨과 신심에 넘쳐 돌아간다고 한다.

이런 방문객들을 배려울 때마다 김화군사람들은 지방공업발전의 새로운 기준, 본보기로 될 현대적인 공장들을 다름아닌 자기 고장에서 창조하도록 하여준 나라의 은정에 감사의 마음을 금치 못해한다.

이들은 하나와 같이 현대화에서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나라에서 마련해준 지방공업생산지기들을 부단히 발전시켜 자기 고장을 자급자족하는 군으로, 지방이 변화는 오늘의 시대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군으로 되게 할 열의에 충만되어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비날론발명가 리승기

1905. 10. 1 - 1996. 2. 8.

《나는 조선에 대한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 일본에서 연구사업을 했고 해방(1945. 8. 15.)후에는 남조선에서도 살면서 연구를 해보려 했다. 그러나 어디서도 나는 용납되지 않았다. 오직 공화국북반부에 와서야 나는 나의 이상을 실현했고 나 자신의 인생도 빛내일 수 있었다. ...

나라와 민족이 있고서야 개인의 운명도 있는 것이다.》

리승기는 수많은 박사, 교수들을 양성하였다.

그는 원사, 교수, 박사이며 다른 나라의 과학원 명예원사, 명예교수칭호도 받았다.

그는 주체46(1957)년 8월 제2기부터 제9기에 이르기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어 사임하였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세운 특출한 공로로 하여 로력영웅칭호와 김일성상, 인민과학자칭호와 함께 많은 훈장과 메달을 받았다.

남의것이 된 발명

리승기는 어릴 때부터 늘 배천을 짜느라 고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 꼭 값죽으면서도 부드러운 천을 만들어 어머니의 수고를 덜어주고싶었다.

이것은 그의 가슴에 소중한 꿈으로 간직되게 되었다.

리승기의 인생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서 흘러왔다고 할수 있다.

남달리 향학열이 높았던 그는 봉건의 질곡과

망국인의 처지로 하여 17살에 뒤늦게야 학문에 뛰어들었다.

그는 일본에 건너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교토제국대학의 공학부에서 화학을 전공하였다.

무슨 물질이든지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내는 화학의 세계에 깊이 빠진 그는 꼭 화학의 힘으로 천을 만들어 어린시절의 꿈을 이룰 결심을 굳히었다.

그러나 배움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학비난과 민족차별로 인한 눈물겨운 고통과 괴로움이 걸음걸음 그를 괴롭혔다. 그는 학문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그 모든것을 이겨나갔다.

그는 최우수생이었지만 졸업후에는 조선사람이라는 단 한가지 리유로 민간위탁연구생으로밖에 될수 없었으며 5년만에야 조수에서 벗어나 일본화학연구소의 연구강사로 되었다.

그 자리는 무시할수 없는 그의 연구성과를 리용하기 위한 일본인들이 내던진 미끼에 불과한것이였다.

그러나 그 어떤 차별과 멸시도 기어이 조선의 화학을 올려세워보려는 높은 지향을 안은 그의 탐구정신만은 흐려놓지 못하였다.

그는 불같은 열정으로 짧은 기간에 《섬유소유도체용액의 투전적 연구》에 관한 박사논문물을 완성하였으며 33살에 공학박사가 되었다.

그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되고있는 화학섬유의 연구실태와 자료들을 종합하는 과정에 그는 무기물질인 돌이나 석탄같은데서 실을 뽑을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되었다.

조국에 흔한 석회석과 무연탄을 원료로 하는 폴리비닐알콜에서 섬유를 뽑기만 하면 이것은 새로운 기적이 아닐수 없었다.

1년 남짓한 기간에 합성섬유생산의 리론적기초가 마련되었으며 주체28(1939)년 7월 12일에는 끝



중국에서 진행된 세계과학자대회에 우리 나라 대표단 대표로 참가한 리승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호요방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리승기



리승기는 저술활동도 많이 하였다.

그의 대표적저작은 《비날론》과 《비날론 논문집》이다.

단행본 《비날론》은 다른 나라에서도 번역출판되었다.



그의 유해는 신미리에국립사릉에 안치되어 있다.

내 돌에서 실을 뽑는데 성공하였다.

새 섬유에 대한 연구성과가 발표되자마자 일본의 보도계는 세계를 향해 선전하였다.

《대일본섬유과학이 세계섬유과학사에 세운 금자탑! 대일본섬유과학은 단연 세계의 첨단을 견고있다.》

발명자도 일본인교수의 이름으로 크게 소개되었고 리승기의 이름은 마감에 얼핏 꼽아버렸다.

순간 허무와 멸시의 예리한 충격이 그의 가슴을 마구 허벼댔다.

일제가 그의 모든 성과를 저들의것으로 만들었던것이다.

박사의 운명

리승기는 해방후 자기의 발명품을 안고 고향인 남조선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외세가 틀고앉은 남조선 역시 그의 꿈을 실현할 곳이 못되었다.

후날 리승기는 인생 90년에 남조선에서 산것이 불과 5년밖에 안되지만 그때 허비한 시간이 몇십년으로 여겨진다고 아까운 마음을 금치 못해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공화국의 품에 안긴 그의 운명에서는 극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공화국에서는 그에게 전쟁의 어려움속에서도 청수에 연구기지와 기술력량을 꾸려주었고 수많은 과학기술서적들도 보장해주는 등 연구와 실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었다.

비로소 꿈속에서도 바라던 모든것을 얻게 된 리승기는 마음껏 연구에 분투하였다.

고심어린 노력으로 그는 주체45(1956)년에 첫 합성섬유의 시제품을 만들어내었으며 국내의 실정과 원료에 의한 공업화의 돌파구도 열어놓았다.

주체46(1957)년 시제품을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리승기선생을 만나신 자리에서 그의 발명품인 폴리비닐알콜계섬유의 이름을 우리식으로 《비날론》으로 부르는것이 좋겠다고 그 이름까지 고쳐주시었다.

주체50(1961)년 5월 첫 비날론공장이 조업하는 날에는 《오늘은 리선생의 소원이 풀리는 날입니다.》라고 그를 축복해주시었다.



비날론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있는 리승기



김일성상계 관인, 로력영웅, 인민과학자, 원사, 교수...

생전에 그는 후대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었다.

《한 과학자의 운명은 그자신의 자질과 노력, 즉 주관적요소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그가 사는 사회제도의 성격에 의해 규정된다.》

본사기자 김성경

공화국의 따뜻한 품속에서 리승기는 그후에도 비날론의 품종을 늘이고 질을 개선하며 공장의 능력을 확장하고 무연탄가스화실현 등 비날론연구에서 나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였다.

비날론과 함께 90인생을 살아온 리승기는 누구나 쉽게 오를수 없는 영광의 단상에서 자기의 삶을 빛내었다.

상식

비 날 론

비날론은 폴리비닐알콜로 만든 합성섬유이다. 면을 대신할수 있는 좋은 섬유이다.

비날론은 방적방식에 따라 짧은섬유(스프), 긴섬유(인견사), 띠섬유 등으로 나누며 제조방법에 따라 습식방사비날론, 건식방사비날론, 세기에 따라 보통비날론, 고강력비날론, 초고강력비날론 등으로 나눌수 있다.

비날론은 흰색을 띠며 윤기나고 밀도가 1.26~1.32g/cm³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섬유들중에서 세기가 비교적 큰편이며 젖은 상태세기는 마른 상태세기의 80%정도이다.

내마모성은 다른 합성섬유나 천연섬유보다 좋다. 비날론은 OH기를 가지고있는 친수성섬유로서 합성섬유중에서 흡습성이 제일 좋다.

열견딜성도 비교적 높은 편이며 빨래가 쉽게 된다.

불에는 잘 타지 않으며 태우면 불쾌한 냄새가 나지만 유독가스는 발생하지 않는다.

산, 알칼리에 견디는 성질도 좋다.

대부분의 유기용매에는 안정하고 다만 개미산, 페놀, 크레졸, 니트로벤졸, 질은 린산 등에 풀린다.

또한 기후견딜성이 좋고 바다물속에서도 썩지 않으며 여러가지 곰팡이에 대하여 안정하다. 열전도성이 낮으므로 보온성도 좋다.

비날론은 흡습성이 좋고 질기기때문에 스프를 만들어 옷감용천을 짜는데 많이 쓴다. 인견사는 천연견사와 성질이 비슷하기때문에 비단옷감을 짜는데도 쓰인다.

또한 비날론은 돛천, 천막, 방수포, 고기그물, 러파포, 차바퀴 또는 벨트용코트실 등을 만드는 공업용 섬유로 널리 쓰이며 합성종이원료로도 쓰인다.

* * *



권영숙동포

애국의 마음 전하는 평양보링관



충성비
1994년 2월 개관된 평양보링관은 애국지사 권영숙동포의 헌신과 노력으로 완공된 것이다.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후세에 길이 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애국지사들의 충성심을 본받아,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을 위하여 노력하자.



수도 평양의 중심부에서 옥류교를 따라 대동강을 건지면 인차 지붕에 보링핀봉을 형상한 보링관이 시야에 들어온다.

이 평양보링관에는 재일동포상공인 권영숙동포부부의 애국의 지성이 깃들어 있었다.

권영숙동포가 조국을 방문한 것은 주체73(1984)년 4월이었다.

그때 그는 여러 재일동포상공인들과 함께 꿈결에도 그리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처음으로 만나뵈게 되었다.

이역만리에서 찾아온 재일동포상공인들을 마치 헤어졌던 친자식을 만나듯 반겨맞아주신 그이께서는 그들의 기업형편과 생활정형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따듯이 물어주시었다.

그날 그는 돈은 오늘 있다가도 래일에는 없을수 있고 오늘 없다가도 래일에는 생길수 있지만 조국은 한번 잃으면 그만이라는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으며 목숨처럼 귀중한 조국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할 결심을 다졌다.

조국방문을 마치고 일본으로 간 그는 남편인 강진혁과 토론을 하고 보링설비를 마련하여 보내기로 결심하였다.

조국에서는 그들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으며 명당자리에 보링관부지를 정해주고 관록있는 설계집단이 설계를 맡아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어 평양보링관은 주체83(1994)년 2월 개관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해 2월 25일 평양보링관을 찾아주시고 권영숙동포와 그 가족들의 애국의 마음을 높이 치하하시었으며 보링관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었다.

지금 이곳 관리원들은 동포의 애국지성이 깃든 설비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정상관리해나가고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된 평양보링관에는 40개주로를 갖춘 보링경기장과 여러개의 대중식사실, 상점, 당구장, 탁구장, 한증탕과 함께 각종 오락봉사시설들이 있다.

지난 기간 평양보링관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링협회 성원들로 보링경기들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평양국제보링초청경기대회도 진행되었다.

이곳에서는 최근에 유희오락시설들을 더 많이 갖추어 놓아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마련해주고있다.

보링관앞에 사람들의 눈길이 잘 미치는 곳에 자리잡은 충성비는 총련상공인 권영숙동포와 그 가족들의 애국지성을 오늘도 전하고있다.



《범은 죽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큰어머니는 조국에 평양보링관이라는 이름으로 애국의 자욱을 남기셨습니다. 멀리 이국땅에 살면서도 언제나 조국을 위하여 모든 성의를 다하고있는 큰어머니의 애국의 뜻을 변함없이 이어가겠습니다.》

권영숙동포의 조카인 평양보링관 판장 신현

글 본사기자 임향심
사진 본사기자 리철

보고 싶은 언니에게



언니, 건강은 어떠합니까. 세월은 류수와 갈다더니 언니도 이제는 여든을 가까이합니다.

우리 형제는 신문과 방송에서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관련한 소식을 들을 때면 늘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놓곤 합니다. 그때마다 언니의 모습이 눈에 선히 안겨오면서 안부도 묻고 소식도 전하고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가 살고 있는 해주시에 《금수강산》잡지편집부의 기자선생들이 오셨길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잘 있습니다. 지난해 광천오빠가 덩실하게 큰 3칸짜리 새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지금 광천오빠는 오류이 성할 때까지 나라의 은덕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겠다고 하면서 손에서 일을 놓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여든을 넘긴 은혜언니도 젊은 시절의 창작적열정으로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노래하는 시가작품을 써내느라 손에서 붓을 놓지 않고있습니다.

저도 오빠와 언니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애쓰고있지만 생각뿐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계남목장에서 나오는 생산물

로 인민들의 구미에 맞게 갖가지 음식들을 만들어 봉사하려면 아직도 미숙한것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은 점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는 언니의 모습을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생전에 어머니는 늘 우리 집안에 애국자가 나왔다고, 언니처럼 조국앞에 백성된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형제들에게 긍지스럽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저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몸가끼이에서 뵈옵는 언니가 얼마나 돋보이던지.

언니, 지금 조국인민들은 나라의 전면적부흥, 전면적 발전을 안아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습니다.

우리 황해남도인민들도 엄청난 방역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몸소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보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사랑에 기어이 보답하기 위해 심장을 불태우고있습니다.

도에서는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유족한 생활을 제공해주자면 농업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지방건설을 발전시켜 사회주의농촌의 면모를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이 시와 여러 군들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해주뜨락또르부속품공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 과감한 생산돌격전을 벌려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는 성과를 거두고있습니다.

정말이지 도시와 농촌, 공장과 농장 할것없이 부글부글 끓고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이 벅찬 시대의 숨결에 보조를 맞추어 건설장들과 농촌들에 대한 지원을 물심량면으로 하고있습니다.

얼마전에는 해주시 옥계동에 건설하는 살림집건설장에 찾아가 일도 하고 실참에는 건설자들에게 노래도 불러주었습니다.

아마 언니가 우리가 사는 황해남도에 오면 몰라보게 변모된 모습에 힘을 얻을것입니다.

언니, 조국을 위한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도 건강에 류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가 모여앉을 상봉의 그날을 그리며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황해남도 해주시 장춘동 28인민반 최은실동생 올림

환경 파괴의

주범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핵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시키려는 일본당국의 기도가 내외의 비난과 규탄을 받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당국은 국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22일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핵오염수해양방류계획을 정식 승인하였다.

2011년 3월 강한 지진과 해일로 손상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에는 100t이상의 핵오염수가 저장되어있으며 지금도 그 량은 매일 약 140t씩 늘어나고있다.

리해타산만 앞세우는 발전소의 경영자들과 일본당국자들은 무작정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류시키려 하고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일본은 물론 태평양연안국가들의 해양환경과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부정적영향을 미칠수 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실지로 2021년 2월과 4월 후쿠시마현의 주변수역에서 잡은 물고기체내의 방사성물질함유량이 허용수치보다 훨씬 많다는것이 밝혀져 시장들에서 물고기판매가 금지되는 등 소동이 일어났다.

최근에는 발전소사고로 이미 루출된 방사성물질이 태평양과 북빙양으로 흘러들었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되어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에 의하면 사고당시 바다에 흘러든 방사성물질인 세시움-137이 미국의 서부해안에 밀려들었으며 그 일부가 북상하여 태평양의 최북단에 있는 베링그해를 거쳐 일본의 동북부해안에 다시 흘러들었다. 동시에 북빙양에서도 세시움-137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연구보고서는 바다흐름이 센 후쿠시마연안에서 핵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는 경우 방사성물질이 몇년후에 전세계의 해역으로 퍼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로 인한 방사성오염이 매우 심각하며 일본의 핵오염수방류계획이 더 큰 위험을 몰아올수 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하다면 이처럼 위험한 핵오염수를 기어코 바다에 방류시키려는 일본당국의 속심은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일본당국의 결정은 순수 경제적원가에 대한 타산으로부터 출발한것으로서 안전한 처리조치를 충분히 강구하지 않았고 주변나라들, 국제사회와 충분히 토의하지도 않았다, 저들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국제사회에 위험을 들쭉우는것은 무책임하면서도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이라고 단죄하였다.

태평양섬나라연단수뇌자회의와 외무상회의 등 국제회의들에서는 일본당국의 일방적인 핵오염수방류계획을 반대배격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일본에서도 당국의 처사에 반기를 들고있다. 최근에만도 이와데현과 후쿠시마현 등 3개 현에서 약 4만 2 000명이 핵오염수방류를 반대하여 서명하였다. 2021년 6월부터 이 서명활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약 22만 1 000명이나 된다. 그들은 핵오염수방류가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주변지역에서의 어업활동과 경제발전에 파국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강력히 반대해나서고있다.

일본이 방대한 량의 핵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시키려 하는것은 광대한 바다의 생태환경과 식품안전, 인류의 건강에 파국적후과를 초래할수 있는 위험천만한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서 남을 해치는데 습관된 파렴치하고 강도적인 행태의 연장이다.

현실은 지구의 환경과 인류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과연 누구인가를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동방의 천년강국 고구려 (1)

반만년의 우리 민족사는 민족의 기개와 슬기를
만방에 떨친 역사로 수놓아져있다.

중세시기 동방의 천년강국으로 존엄떨친 고구려의
역사가 바로 그러하다.

고구려(B.C. 277년-A.D. 668년)는 민족사에서 넓은
영토와 발전된 문화를 가진 강대한 나라였다.

고구려는 끊임없이 밀려드는
외적의 침공을 물리치고 나라
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고
수하였으며 삼국시기 우리 나
라 역사발전에서 중심적인 역
할을 하였다.

고구려의 시조는 동명왕이며
그의 이름은 고주몽이다.

고주몽은 어릴 때부터 남달
리 영특하고 특히 활쏘기를 비
롯한 무술에 뛰어난 재능을 가
지고있었다. 주몽이라는 이름
도 《활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그는 출중한 무예를 가졌던
것으로 하여 부여왕자들과 신
하들의 의심과 미움을 받게 되
였으며 그로 하여 왕실의 말목
장 목자(말먹이군)로, 천민으
로 굴러떨어지게 되었다. 목자
생활과정에 그는 부여사회의 하

층인민들의 생활처지를 직접 체
험하면서 당시의 사회적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였
으며 새로 자라나고있는 봉건적
관계에 기초한 나라를 세울 결
심도 하게 되었다.

B.C. 278년경에 부여통치배
들의 박해가 심해지자 그는 뜻
을 같이하는 동료들과 함께 탈
출하여 구려땅으로 피신하였
다. 이곳에서 그는 정치군사적
지반을 닦고 무공을 세움으로써
구려5부의 하나인 파루부의 대
인(우두머리)으로 되었으며 얼
마후에는 왕의 눈에 들어 둘째
공주와 결혼도 하게 되었다.

구려왕이 죽자 사위인 그가
왕위를 잇게 되었다.

왕위에 오른 주몽은 국호를
고구려로 고치고 신흥봉건세력
의 리해관계를 대변하여 봉건

적인 국가사회제도를 세워나갔
다. 이렇게 되어 우리 나라 력
사에는 첫 봉건국가가 출현하
였다.

동명성왕에 의한 고구려봉건
국가의 창건은 근 3 000년동안
이나 지속된 노예소유자사회를
종식시키고 우리 나라에서 처
음으로 봉건사회의 시원을 열
어놓은것으로서 민족사발전에
서 획기적전환을 이룩한것으로
되었다.

건국당시 고구려의 기본주민
은 고대 조선민족의 한 갈래인
구려사람들이었다. 그후 고조
선, 부여, 옥저, 예 등의 주민
들이 고구려의 주민구성에 들
어왔다. 이들은 다 조선옛류형
사람들의 후손으로서 단군조선
(전조선)시기 그 영역안에서 이
미 하나의 민족을 이루었었다.

그러다가 전조선말기에 이르러
부여, 구려, 진국 등 여러 나라
들이 고조선에서 떨어져나가면
서 서로 다른 고대국가안에서
살게 되었으나 그 주민들은 여
전히 하나의 민족, 조선민족의
구성부분이었다.

고구려는 자기의 존속 전기
간 크게 세개의 수도를 가지고
있었다.

고구려의 첫 수도는 졸본(중
국 료녕성 환인)이었다. 그후
A.D. 3년(류리명왕 22년)에 수
도를 국내(중국 길림성 집안)로
옮겼다가 427년(장수왕 15년)
에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고구려는 427년 평양천도이
후에 더욱 강대한 나라로 되었
다. 이 시기에 고구려는 강력한
국력에 의거하여 삼국의 통일을
거의 완성단계에 올려세웠
으며 대외적으로 높은 위세를
떨치였다.

평양천도를 계기로 단군조선
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민족사의
정통은 굳건히 이어지게 되었
다. 평양천도는 평양지방을 개
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상
의 도움을 찾아서 고조선의 수
도였던 평양에 다시 돌아온것으
로서 고구려가 고조선의 계승국
임을 정식 선포한것이나 같은것
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평양천
도는 고구려의 사회력사발전,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사발전
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
사적사변으로 되었다.

고구려는 건국할 당시까지
만 해도 그 영역은 그리 넓지
못하였다. 고구려의 전신국이
였던 구려의 영역은 압록강중
류의 혼강(압록강의 한 지류)중
하류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우
리 나라 서부지역과 중국동북
의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있었
다. 이러한 조건은 고구려로 하
여금 건국초기부터 강력한 봉건
국가에 상응한 영역확대에 주력
하게 하였다.

고구려는 건국직후부터 1세
기중엽까지 봉건적중앙집권체
계를 갖추어나가면서 주변에 널
려있던 소국과 정치세력들을 통
합함으로써 사방 2 000리에 달
하는 큰 나라로 되었으며 다른
편으로는 반침략투쟁을 통하여

겨레의 나라인 고조선의 유민들
을 포섭하면서 그 옛 땅의 많은
부분을 되찾았다.

고구려는 그후 고조선의 옛
땅을 되찾는것을 기본정책으로
내세우고 완강하게 밀고나감으
로써 370년대에 이르러 그 력
사적위업을 완수하였다.

고구려는 자기 발전의 후기
에 들어선 4세기말엽부터 삼국
통일을 기본정책으로 내세우고
남쪽에서의 진출을 강화해나감
으로써 6세기전반기에 삼국통
일을 거의 완성단계에 올려세
우게 되었다.

그리하여 고구려는 그 전
성기에 동서 6 000리, 남북
5 000여리의 방대한 영역을 가
진 강대국으로 위세를 떨치게
되었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실장
박사 부교수 강세권





평양의 이름과 더불어 유명한 랭면

평양랭면의 기본원료는 메밀가루이다. 메밀에는 사람의 몸에 좋은 영양성분들이 많아 이것으로 만든 식품은 옛날부터 건강식품으로 알려졌다.

역사가 유구하고 산천경계가 수려한 평양에는 오래전부터 이름난 음식들이 많습니다.

그가운데는 평양에 왔다가 그 맛을 보지 못하면 평생 후회하게 된다는 평양랭면도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여러가지 음식감들, 눈맛뿐 아니라 입맛 또한 그 어디 비길데 없으며 낫그릇의 눈부신 빛과 독특한 모양으로 더더욱 유명한 평양랭면은 그야말로 평양의 이름과 나란히 하면서도 조선국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민족음식입니다.

평양랭면을 소개하는 이 기회에 독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국수의 유래와 종류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수는 1 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조선민족의 고유한 음식입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국수는 절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불교가 번창하던 고려시기 어느한 절에는 칼제비국을 몹시 즐겨 먹는 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은 그 절에서 중들의 회합이 열리었는데 대사는 칼제비국을 대접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령을 받은 중들은 한꺼번에 많은 칼제비국을 만들자니 손이 모자라 구멍이 송송 뚫린 자그마한 통에 반죽물을 넣고 우에서 내리누를수 있게 분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분들에서 누른 국수오리들을 끓는 물에 데쳐내어 국물을 부은것이 처음의 국수였습니다.

그러고보면 《칼제비 잘하는 사람이 국수도 잘한다》는 조선 속담에도 있듯이 국수의 조상은 칼제비라 할수 있을것입니다.

보다싶이 조선민족은 오래전부터 남너로소가 국수를 일상음식으로 즐겨 먹었을뿐 아니라 특히 잔치날에는 의례히 국수를 손님들에게 대접하는것을 풍습으로 여기였습니다.

하여 흔히 시집장가갈 나이에 이른 처녀총각들은 결의 사람들로부터 《국수를 언제 먹을수 있을까?》, 《국수를 빨리 먹자요.》와 같은 말을 종종 들곤 하기도 합니다.

국수의 종류는 국수오리를 만드는 기본음식감에 따라 메밀국수, 밀국수, 농마국수, 강냉이국수 등으로 나누며 조리방법에 따라 랭면, 온면, 쟁반국수, 비빔국수, 회국수, 칼국수 등으로 나눕니다. 국수는 종류에 따라 음식감이나 국물, 꾸미를 달리하고있습니다.

랭면은 국수에서 기본이며 평양랭면은 여러 지방의 랭면가운데서도 가장 이름났습니다.

옛 문헌인 《해동죽지》에 《랭면가운데서도 평양랭면의 맛이 제일 좋다.》고 한것과 《동국세시기》에 《메밀국수에 무우김치와 배추김치를 넣고 그 우에 돼지고기를 얹은 랭면이 있다.》, 《국수를 나박김치나 동치미에 말고 우에 배, 배추김치를 얹고 고추가루, 잣을 놓는다.》는 내용들을 보면 옛 시기부터 랭면을 아주 다채롭게 만들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평안도인민들은 오래전부터 메밀가루로 만든 국수사리를 쟁한 동치미국물이나 쟁고기를 삶은 물에 말아먹었는데 추운 겨울에도 랭면을 즐겨 먹었습니다. 평양랭면의 국수감은 사람의 몸

에 좋은 영양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장수식품으로 일러온 메밀을 쓰고있습니다. 평양랭면은 메밀의 겉껍질을 벗기고 보드랍게 가루내어 반죽한 다음 분들에 눌러사리를 짓는데 국수오리가 지나치게 질기지도 않고 먹기에 알맞춤하며 메밀의 고유한 성분은 국수의 향기와 맛을 더욱 돋구어줍니다.

평양랭면은 국수물맛이 특별합니다. 국수물을 일명 육수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같은 고기국물에 시원한 동치미국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는 평양랭면은 하도 유명하여 조국인민들과 해외 동포들, 외국인들이 남긴 일화들이 적지 않다.

《유류관에서 평양랭면을 맛보지 않고서는 평양에 갔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말도 그중의 하나이다.

물을 적절히 배합하여 만듭니다.

국수사리는 육수물을 부었을 때 인차 풀릴수 있으면서도 소담하게 말아 물을 짜워놓습니다. 보기에도 시원한감을 주며 건강에도 좋은 낫그릇에 담을 때에는 국수사리를 놓고 여러가지 꾸미와 삶은 닭알을 올려놓은 후 육수물을 붓습니다.

담담하고 쫄깃한 국수사리와 그것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감미로운 육수물 그리고 조화로운 맛을 내는 여러가지 꾸미 등으로 음식의 품위가 돋구어진 평양랭면은 맛에 있어서나 영양가에 있어서 흠잡을데가 없습니다.

독자여러분에게 평양랭면을

더욱 맛있게 드시는 비법까지도 알려드릴가 합니다.

여러분은 한자리에 가만 붙어앉아있지 못하고 자꾸 왔다갔다하는 사람을 가리켜 《국수집 식초병같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것입니다. 바로 식초가 평양랭면의 맛을 한결 돋구어줍니다.

유명한 평양랭면도 겨자장을 곁들이지 않고서는 그 진미를 다 낼수 없습니다.

겨자장은 겨자가루를 더운물로 개어 발효시킨 후 식초와 사탕가루, 소금을 넣어서 만듭니다. 흔히 조선사람들은 생활에서 《울며 겨자먹기》라는 말을 쓰고있는데 울면서도 먹어야 할만큼 겨자는 그 맛이 매우 독특하며 고기의 잡맛을 없애주기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낫그릇에 무드기 담긴 평양랭면을 마주하게 되면 먼저 국수발에 식초를 적당히 뿌리고 겨자장을 놓은 다음 국수사리가 국수물에 충분히 풀어지도록 저어 꾸미와 함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평양랭면의 진맛이 어떤가 하는것을 잘 아시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평양랭면은 옛적부터 독특한 기법으로 전승되고 다듬어진 요리로서 달고 시원하며 향미로운 여러가지 맛이 예술적으로 훌륭히 조화된 조선의 특산 음식입니다.

역사가 깊고 조리법이 독특하며 대중화된 조선의 평양랭면풍습이 인류의 비물질문화유산 대표적목록에 등록되었습니다.

본사기자 연 옥

동물화로 이름을 남긴 리암

리암은 조선봉건왕조회화사에서 걸작으로 불리우는 작품들을 창작한 16세기를 대표하는 화가의 한사람이다.

1499년 한양에서 태어난 리암은 자를 정중이라고 불렀고 립영대군 리구의 증손으로서 두성령이란 작호를 받았다.

당시는 유교성리학이 성행하면서 사회적으로 그림을 천한것으로 보았고 화가를 《환쟁이》로 부르면서 업수가 여기는 현상이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되고있었다.

그러나 리암은 여기에 구애되지 않고 그림을 좋아하고 사랑하였다.

특히 그는 주위에서 벌어지는 평범한 현상들을 자기의 화폭에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리암은 짐승들을 그리기 좋아하였다. 채색으로 고양이와 강아지를 신룡하게 그리는것이 그의 특기였다.

리암이 고양이와 강아지를 많이 그리게 된 동기가 있었다.

어느날 왕궁뜰안에서는 그전에 볼수 없었던 광경이 펼쳐졌다. 고양이와 강아지가 싸우고있었던 것이었다. 그 소리에 온 왕궁이 들썩하였다. 그것들이 싸우게 된 리유인즉 왕궁뜰앞에 쫓겨 깃털이 떨어져있었는데 고양이가 그것을 보고 먼저 입에 물고 자기 주인에게로 가려고 할 때 갑자기 한 왕자가 애완하던 개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었던것이다. 갑자기 달려드는 개앞에서 어쩔바를 모르고있던 고양이는 옆에 서있는 나무를 보자 눈깜박할 사이에 입에 깃털을 문채 나무우에 올라갔다. 고양이를 놓쳐버린 개는 나무밑에서 고양이를 올려다보며 계속 짖어댔다.

고양이와 개의 싸움이 그 주인들에게로 번져져 서로 상대방의 고양이와 강아지를 걸고들면서 뜰안이 떠들썩하게 고아대고있었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면서 리암은 고양이와 강아지가 화목하게 노는 모습을 그려보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나무에 오른 고양이(87×44cm) 종이·채색

그는 자기의 그림에 강아지와 고양이가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쫓겨난 고양이를 부리는 강아지와 고양이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려냈다.

현재 조선미술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그림 《고양이와 강아지》, 《나무에 오른 고양이》는 바로 이런 의도에서 그린 리암의 대표작이다.

그밖에도 《한쌍의 기러기》, 《어미개》 등도 있다.

동심적이고 해학적인 형상속에 동물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져있는 리암의 그림들은 언제나



한쌍의 기러기 (80.7×50cm) 종이·채색

마음이 유쾌해지고 맑아지게 한다. 독창적이고 민족적인 정서가 강한 리암의 화풍은 종전의 동물화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일련의 특징을 보이고있다.

그것은 우선 향토적이며 락천적인 성격이 화면에 진하게 풍기고있는것이다.

이 시기 사람들속에서는 부귀, 화목, 장수, 애정 등 삶의 희망을 꽃과 동물들에 비겨 전해왔다.

특히 사람들과 함께 있는 동물들을 화목을 가져다주는 대상으로, 산이나 들에서 사는 짐승을 간사한것을 물리치는 대상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많이 그려 방안에 걸어놓고 감상하였다.



어미개 (73×42.2cm) 종이·담채

을밀대에 깃든 전설

6세기중엽 고구려 평양성 내성의 북쪽장대로 세운 을밀대에는 을밀장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전설이 깃들어있다.

을밀장군은 뛰어난 무술과 용맹, 슬기로운 지략으로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서 큰 공로를 세워 인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세월은 흘러 로년기에 이르게 되자 을밀장군은 아들인 나래를 비롯한 많은 젊은이들에게 무술을 배워주었고 일정한 수준에 이른 다음에는 삼년 석달을 말미로 산중에 보내어 무술을 익히도록 하였다.

나래는 아버지의 결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처녀 고비에게 아버지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들이 산중에서 무술을 배우기 시작한지 몇해가 지난 어느 날 뜻밖에 외래침략자들이 평양에 쳐들어왔다.

을밀장군은 이미 늙은 몸이라 싸움을 지휘하기가 여간만 어렵지 않았다.

남북차림으로 장군결에서 싸우던 고비가 무술을 닦으러 떠난 젊은이들을 불러오자고 간청하였으나 그때마다 을밀장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자고 큰뜻을 버려서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장검을 뽑아들고 말에 올라 대오를 이끌고 적진으로 쳐들어가 외적을 삼대베듯 쓸어 넣었다.

그런데 을밀장군이 싸움에서 그만 중상을 입게 되었다.

렴람군을 통해 을밀장군이 자리에 누웠다는것을 안 외적들은 기를 쓰며 달려들었다.

적정을 보고받은 을밀장군은 투구와 갑옷을 갖추어입고 모란봉에 올라 결사전을 조직하였다.

치열한 싸움의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런 속에서 을밀장군은 또다시 치명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다. 고비는 더 생각할 겨를이 없이 말을 달려 무술을 닦고있는 나래와 젊은이들에게 갔다.

그는 무술터에 당도하여 평양성의 소식을 전하고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얼마후 나래와 평양성의 젊은이들은 갑옷을 입고 평양성으로 달려왔다.

평양에 도착하여 장군지휘처를 바라보니 거기에는 장군기가 나뭇기고있었다. 그들이 지휘처에 올라가니 벌써 을밀장군은 숨을 거두고 누워있었다. 한 늙은이가 젊은이들앞으로 나서며 《장군은 이미 이틀전에 돌아가셨소. 하지만 장군은 외적들을 쳐 물리치기 전에는 자신을 여기에 그냥 세워달라고 유언하셨소.》라고 말하면서 흐느껴울었다.

나래와 젊은 장수들은 을밀장군을 목놓아부르며 아버지와 스승의 뜻을 이어갈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평양사람들은 을밀장군의 위훈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해 장군이 지휘처로 정하였던 모란봉에 정자를 세우고 《을밀대》라고 그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 * *

이러한 짐승들은 인간생활과 밀착되어 사람들이 애정을 가지고 대하는 대상이었던것만큼 그에 대한 묘사는 향토애적인 감정뿐 아니라 생활의 정서가 짙게 풍기게 하는것이 상례였다.

리암의 그림에서 강아지나 고양이의 형상에 민족적인 향취가 강하게 풍기는것은 이러한 사정과 관련되어있다.

화가는 그림에서 고양이나 강아지의 생태적특성과 움직임의 깊이있게 관찰하고 주위사물현상을 보고 대하는 동물들의 본능적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그리었다.

그러면서도 동물호상간의 관계를 잘 맺어주고 그 세계를 깊이 파고들어 정황묘사를 함으로써 고양이나 강아지, 참새와 꽃나무 등 동식물의 외적표현과 그 특징을 생활적으로 형상하였다. 그의 그림에서 표현된 각이한 모양의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와 참새 등에서는 동물들의 생활과 습성, 호상간의 갈등과 움직임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림의 동물은 모두 귀엽고 재롱스러워 동심세계에 잠긴듯한 느낌과 맑게 개인 따스한 봄날의 아늑한 분위기를, 깨끗하고 락천적인 정서를 잘 드러내고있다.

리암의 화풍의 특징은 또한 형상이 부드럽고

선명한데서 표현되고있다.

리암은 섬세한 관찰력과 정확한 소묘력을 지니고 동물들의 생태적특성과 생활을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화가는 고양이와 강아지들의 천진스러운 표정과 환경을 묘사함에 있어서 색묘법과 함께 선묘기법을 결합하면서 집약적인 묘사수법을 적용하여 화폭의 간결성과 선명성을 훌륭히 담보하였다.

또한 꽃과 새의 형상도 은근하고 섬세한 색채와 선의 뚜렷한 농담효과로 보장하였다.

리암의 사물에 대한 뛰어난 관찰력과 묘사력은 당시 화단에 널리 알려져 소문이 자자하였다.

그가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는가 하는것은 도화서(왕실에서 요구되는 그림을 전문 맡아 그린 관청)의 화원들도 다 참가하지 못한 왕의 화상작에 뽑힌 사실만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이처럼 리암은 인민이 즐기고 사랑하는 형상수법으로 다양한 모습을 잘 보여줌으로써 그의 작품들은 지금도 친근감을 잃지 않고있으며 그는 민족이 자랑하는 화가들중의 한사람으로 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실장 박사 부교수 강병석

우리 민족이 오랜 역사적과정에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문화유산들 중에는 탈도 있다.

종이나 나무, 박 등을 가지고 일정한 모양으로 꾸며서 얼굴에 쓰는 물건인 탈은 사냥이나 적수들과의 싸움, 로동생활과 공동체생활을 비롯한 여러 계기를 통하여 창조되었다.

그후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활동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면서 탈을 많이 리용하였는데 탈춤이 그 대표적이다.

고구려의 고국원왕릉벽화에 인

물형의 탈을 쓰고 춤추는 사람이 형상된것과 백제의 예술가가 일본에 고구려의 탈춤을 보급한 내용, 발해의 상경룡천부유적에서 탈춤

상식

탈

군을 형상한 청동조형품이 발굴된 사실을 통해 우리 겨레가 오래전부터 탈을 만들어 리용해왔다는것을 알수 있다.

탈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 제작방법이나 형식에 있어서 지방적색채를 띠고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황해도지방의 탈춤들에 쓰인것은 종이로 만든 탈이었고 함경도지방에서는 나무탈을 많이 리용하였다. 박, 바구니 등을 가지고 만든 탈들도 있었다.

탈은 오늘날 시대적미감에 맞게 예술적으로 형상되어 체육경기응원과 예술공연무대에서 널리 리용되고있다.

* * *

유모아

《떡 먹어야 얼마나 먹겠니》

한 농민이 자기 집 닭들이 터밭에 갓 심어놓은 씨앗을 투쳐먹는것을 보고 아들에게 말했다.

《쇠돌아, 저 닭들을 당장 붙잡아 우리에 가두어라.》

닭을 놓쳐버린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닭들이 옆집 밭으로 달아났어요.》

《그럼 놔둬라.》

《그 밭에도 씨를 뿌렸는데요?》

《닭이 먹어야 얼마나 먹겠니.》

* * *





금강산 (2)

- 계곡미를 대표하는 내금강 -



내금강은 금강산서부의 명승 지역이다.

금강산의 주봉인 비로봉과 그 북쪽의 옥녀봉, 상등봉, 온정령 그리고 그 남쪽의 월출봉, 일출봉 등 중앙련봉을 경계로 하는 내금강은 외금강과 접하고 있다.

수많은 폭포들과 소들이 짙은 록음, 기암절벽들과 조화되어 있는 내금강은 깊숙하고 그윽하며 수려한 계곡미로 이름 높다.

내금강은 그 지역적특성과 탐

승로정에 따라 만천구역, 만폭구역, 백운대구역, 명경대구역, 망군대구역, 태상구역, 구성구역, 비로봉구역으로 나눈다.

대표적인 명소들은 만천구역과 만폭구역을 중심으로 한 동금강천계곡과 구성구역에 있는 금강천상류계곡이다.

만천구역에는 돈도봉, 석가봉 등이 솟아있으며 아름답리 혼성림이 울창한 수림을 이룬 가운데로 내금강의 중심부의 모든 개울물을 다 받아들이는 동

금강천이 흐르고 있다.

여기에는 수많은 유적유물들도 있다.

이 구역을 지나면 폭포와 소들이 많다고 하여 만폭동이라고 부르는 만폭구역에 들어서게 된다.

만폭구역은 금강산의 계곡미를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온 골안이 폭포와 소들로 되어 있다. 하지만 그 많은 폭포와 소들은 제가끔 자기의 독특한 모양과 그와 관련된 전설들을 가지고 있다.

만폭동에는 입구가 삼각모양이고 들어가면서 좁아진다는 금강문의 돌문과 그 모양이 물에 기여오른 물개를 방불케 하는 물개바위, 우람차게 솟아 절벽을 이룬 봉우리가 앞으로 넘어질 것처럼 서있는 금강대를 비롯하여 흑룡담, 비파담, 분설담, 화룡담 등 팔담 그리고 사자바위를 비롯한 명소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이채로운것은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바위벽에 내리 쪼고 밑에서 맞받아 올리

는 바람에 산산이 흩어지면서 구슬로 부서져 한어름에도 눈꽃처럼 보이는 분설담의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 약 13m높이에서 쏟아지는 물이 층을 이룬 바위턱에 부딪쳐 튀어나는 물방울들이 맑은 담소에 떨어져 진주마냥 반짝이는 진주담의 모습은 만폭동에서 가장 경쾌하고 웅대한 감을 느끼게 한다. 그우에 무지개가 비길 때면 그 모습이 황홀하기 그지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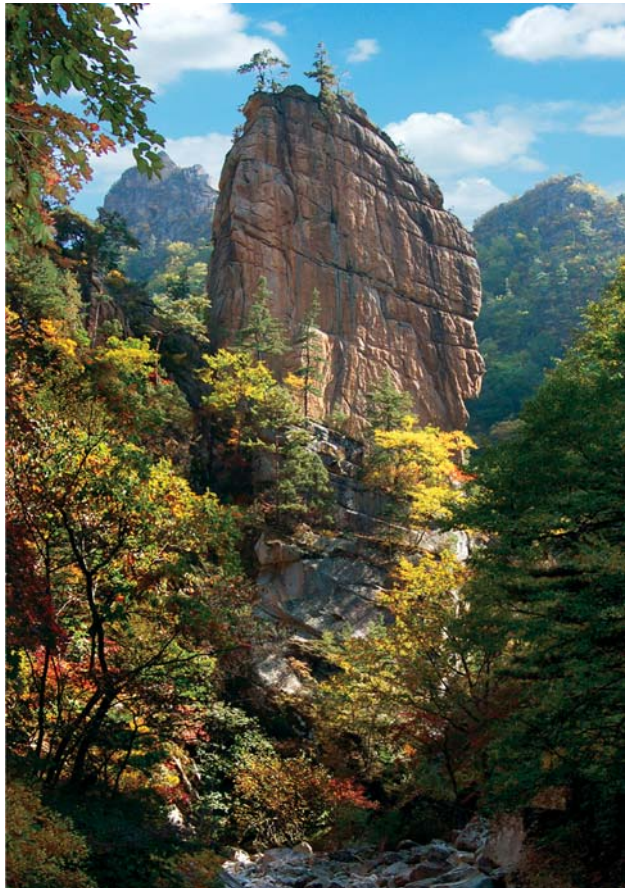
먼 옛날 풍운을 타고 천지조

화를 부리는 화룡이 숨어살았다는 화룡담 역시 우거진 숲과 어울려 은근하고 포근한감을 주고 있다.

구성구역도 우거진 숲과 기암괴석, 개울경치가 어울려 이채로운 계곡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는 옥영폭포, 락상폭포, 가막소를 비롯한 명소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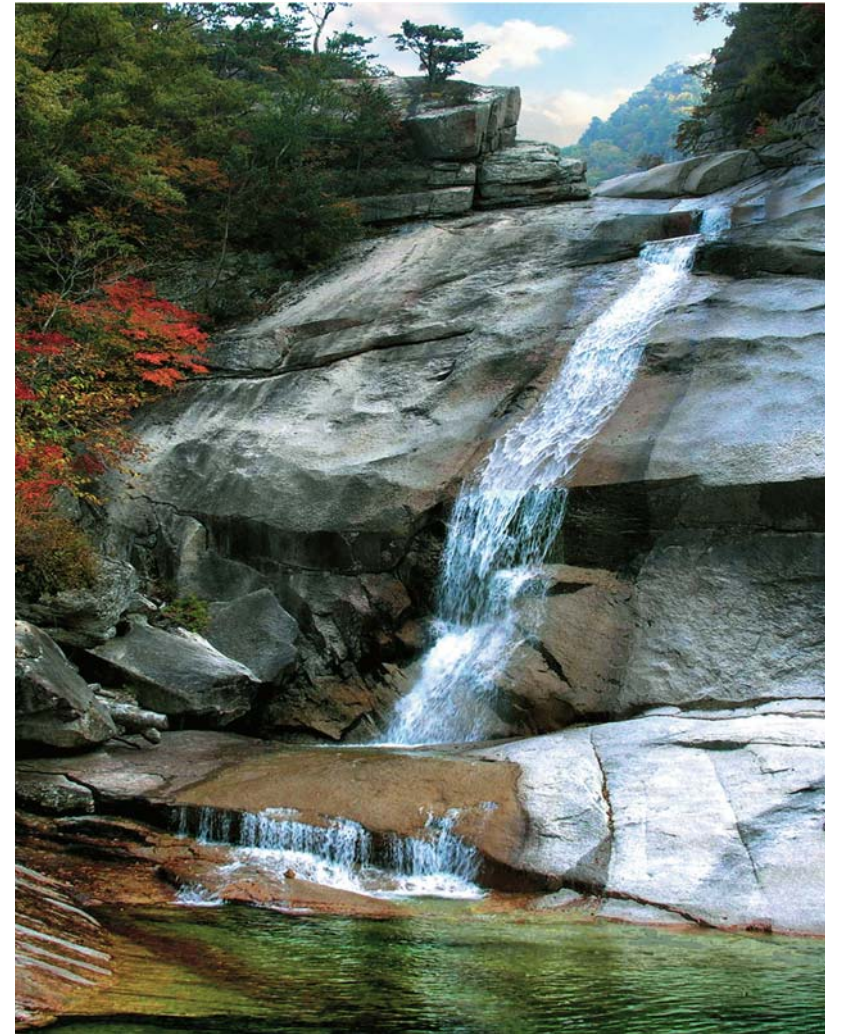
옥영폭포는 금강산의 4대명폭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폭포의 높이는 31m(1계단 10m,



망군대(↑)
명경대(←)
내금강의 청류벽(↓)



옥영폭포(→)
금강산의 4대명폭포의 하나인 옥영폭포는 2계단폭포이다. 옥녀봉과 영랑봉의 물이 하나로 합쳐져 떨어지므로 옥영폭포라고 한다. 폭포밑에는 길고 둥글게 생긴 검푸른 소가 있다.



2계단 21m), 너비 3m이다. 폭포벽의 너비는 약 20m이다. 폭포수는 폭포벽에 생긴 절구통같은 돌확에 들렀다가 2단으로 눈가루를 날리듯이 펄펄 쏟아져내린다. 밑에는 길고 둥글게 생긴 검푸른 소가 있다. 기승을 부리며 윤기도는 희멀건 바위우로 힘차게 쏟아지는 폭포는 주위에 우거진 나무숲과 잘 조화되어 깊숙하면서도 아름다운 장관을 이룬다. 옥영폭포옆에 있는 락상폭포도

몇단 꺾어서 절반 누운 자세로 떨어지는데 옥영폭포 못지않게 웅장하고 장쾌한감을 준다. 이곳을 지나면 희맑은 바위가 깔려있는 상구성동에 들어서는데 이곳에는 땅크바위, 봉서암, 선곰바위, 책바위 등으로 불리우는 기암괴석들이 수없이 많다. 그리고 세굴이폭포와련포담, 옥류벽, 삼형제소, 실라래폭포 등 크고작은 폭포와 소들이 잇달려있어 특이한 계곡미를 나타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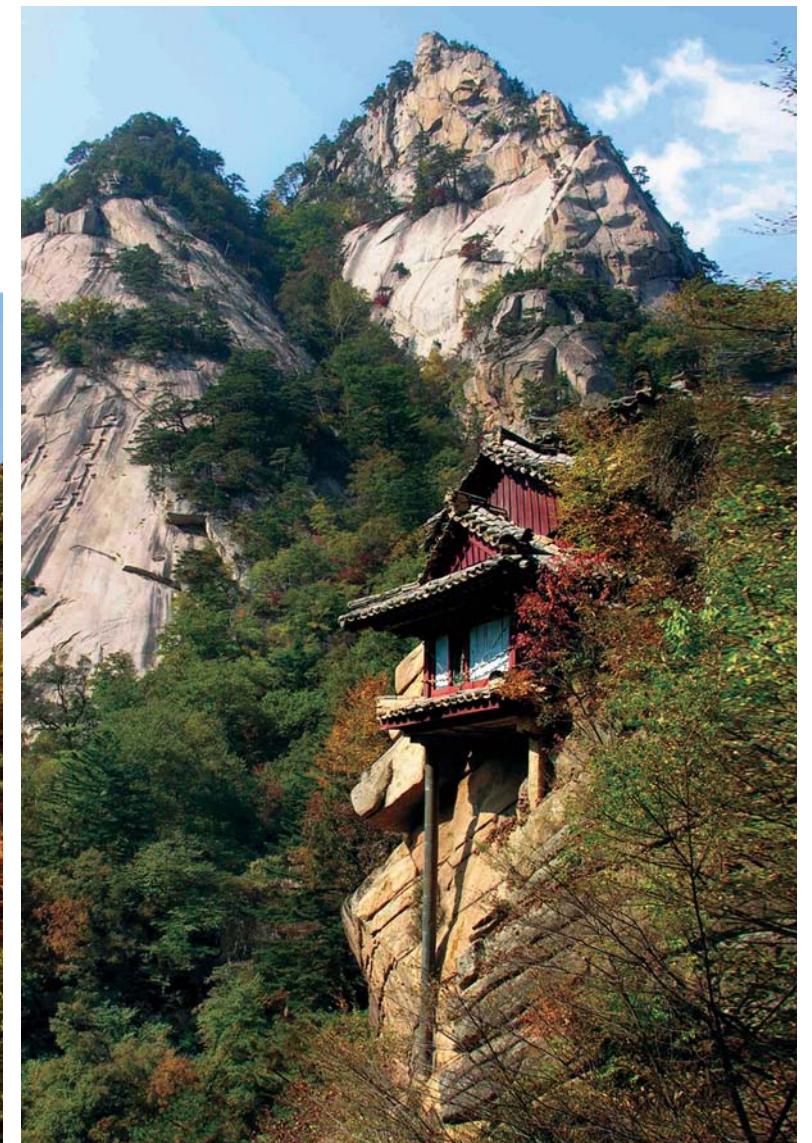
정양사(←)
삼불암(↑)
보덕암(→)

표훈사(↓)
표훈사는 신계사, 유점사, 장안사와 함께
금강산4대 절의 하나이다.

그런가 하면 옛날 신선들이
콩농사를 지었다는 전설이 깃
든 《월명수좌공발등》이라고
하는 고원도 펼쳐져 이곳의 특
이한 경치를 더해주고있다.
이밖에도 내금강에는 톱날
같은 바위줄기가 아침해를 받
으면 령롱한 은빛을 나타내며
저녁해에는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어 아름다우며 그 모습이

마치도 하늘로 오르는 구름사
다리와 같다고 하는 은사다리
금사다리, 산에 큰 거울을 세워
놓은듯한 명경대를 비롯한 기묘
하고 전망하기 좋은 수많은 대
와 자연돌탑을 비롯하여 독특한
자연미를 나타내는 명소들이 수
없이 많다.

본사기자



룡옥리

공룡발자리화석



평양-개성고속도로를 타고 황해북도 평산군 룡옥리의 경내를 달리느라 면 나지막한 산기슭에 드리난 암석 사이에 서있는 건물을 볼수 있다. 건물의 옆에는 공룡이 그려진 직관물이 있어 행인들의 이목을 쉽게 끈다.

건물안에는 주체78(1989)년에 발견된 공룡의 발자리화석이 보존되어있다.

공룡의 발자리는 바위우에 두줄로 나있다. 즉 두마리의 공룡이 이동한 자취이다.

한줄에는 14개, 다른 줄에는 16개의 발자국이 새겨져있는데 척 보기에 그 주인공들이 두발걸음을 하는 공룡들이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중 14개로 된 줄의 발자리들은 그크기가 길이 45cm, 너비 40cm, 깊이 4cm정도이고 오른발과 왼발자리사이의 거리는 80~90cm이다.

발바닥면의 룡곽만 나타나있는 다른 16개의 발자리들은 그 크기가 길이 40~45cm, 너비 35~38cm정도이고 발자리사이의 거리는 약 55~65cm이다.

모든 발자리들에서 발가락과 발톱의 자리는 나타나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중생대시기에 속하는 1억~8천만년전 당시 이 지대가 무른 감탕지대였으므로 발가락 및 발톱 자리들은 감탕에 의하여 메워진것으로 보고있다.

중생대시기 조선에도 큰 공룡들이 많이 존재하였음을 증명하고있는 룡옥리공룡발자리화석은 고생물연구 등에 의의가 크므로 주체79(1990)년에 천연기념물로 제정되었다.

본사기자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